

ASAN REPORT

일본의 대한민국 공공외교와 한일관계: 한일인적교류 천만 시대의 딜레마

최은미

2024년 6월



Asan Report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와 한일관계:
한일인적교류 천만 시대의 딜레마**

최은미

2024년 6월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 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 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의 견해입니다.

저자

최은미

최은미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와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 외교부 연구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하였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한일관계 TF 외부위원, 외교부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위원, 현대일본학회 총무이사·편집이사, 한국정치학회 편집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 일본분과위원회 연구이사 등으로 활동하였고, 연세대, 고려대, 한국외대 등에서 강의한다. 현재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Konrad Adenauer 재단 자문위원이며, 한일포럼 한국 측 대표단, (사)SETO포럼 기획위원장으로도 활동한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일본 정치, 외교, 안보 및 한일관계, 동북아다자협력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과 향후 전망: 한국에의 함의(2023)”,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 이후의 한일관계: 의미, 전망, 과제(2023)”,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발표(2023.3.6) 이후의 한일관계: 전망과 과제(2023)”, “기시다 총리 취임 1년, 흔들리는 리더십: 향후 일본정치와 한일관계(2022)”, “기시다-바이든 미일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대외전략과 한일관계에의 함의(2022)”,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차기정부의 대일외교 과제(2022)” 등이 있다.

목차

I. 연구배경	06
II. 한일교류의 현황과 한국의 대일 인식	08
1. 한일교류의 현황	08
2. 한국인의 대일 인식과 해외에서의 일본에 대한 국가이미지	10
3. 교류와 인식의 상관관계, 그리고 국가이미지	14
III. 일본의 공공외교	17
1. 공공외교란	17
2. 일본의 공공외교: 전후 일본 공공외교의 시작과 역사적 전개 과정	19
3. 일본의 공공외교: 목표, 추진체계, 시행주체, 주요활동	31
4. 일본의 공공외교: 유형과 주요활동	37
5. 일본의 공공외교: 특징과 함의	45
IV.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	50
“일본의 공공외교는 왜 한국에서 성공하지 못했을까?”	
1.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 주요 추진기관 및 활동	51
2.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 특징과 한계	67
V. 한국에의 함의 및 정책적 고려사항	78
【별첨 1】 한일 정부 주관/지원 주요 교류사업	83
【별첨 2】 한국 내 일본 관련 주요 기관 및 단체들	86
참고문헌	88

그림

[그림 2-1] 방일 외국인 중 한국인 수 및 비율(1998~2023)	09
[그림 2-2] 방한 외국인 중 일본인 수 및 비율(1998~2023)	09
[그림 2-3] 한국의 일본에 대한 친근감 및 신뢰감(1996~2023)	11
[그림 2-4]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1991~2022)	11
[그림 2-5] 미국/호주/인도네시아/필리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2005~2018)	13
[그림 2-6] 미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1989~2023)	14
[그림 3-1] 국제교류기금 국내외 거점	36
[그림 3-2] Japan House	39
[그림 4-1] 일본의 정치·사회 운영방식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2013~2023)	72

표

[표 3-1] 전통외교/공공외교/신공공외교 비교	18
[표 3-2] 전후 일본 공공외교의 전개과정	31
[표 3-3] 외부보도관·홍보문화조직 관련 부서 및 주요 업무내용(2023.7.21 기준)	34
[표 3-4] 일본 공공외교의 유형 및 주요활동	38
[표 4-1] <외무성-북동아시아1과> 한일관계 관련 주요사업 및 집행액(예산) (2010~2023)	54
[표 4-2] <외무성-대일이해촉진교류실> 대일이해촉진교류프로그램 중 한국 관련 집행액 및 비율(2015~2023)	56
[표 4-3] JENESYS 청소년(중/고/대학생)교류 사업실적(2008~2022)	60
[표 4-4] JENESYS 위탁/기획 공모사업 실적(2013~2022)	61
[표 4-5] 펠로우십 사업실적(1989~2023)	62
[표 4-6] 이수현씨 기념사업 실적(2002~2023)	65
[표 4-7] 국제교류기금 본부조성 프로그램 사업실적(2003~2009)	66
[표 4-8] 국제교류기금 본부조성 프로그램 사업실적(2010~2022)	67
[표 4-9] 일본에 대한 세대별 이미지(조사기간: 2023.7.7~7.10)	70

I. 연구배경

한일관계의 개선 속 민간교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정부관광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약 695만여 명으로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27.8%(1위)를 차지하며,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212만여 명으로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21.2%(1위)를 차지했다.¹ 한일 양국은 머지않아 2018년에 이은 제2의 인적교류 천만 시대를 맞이할 것이고, 양국은 민간교류 정상화에 촉포를 올릴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일 민간교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양상이다. 최근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일본의 대한국 인식과 한국의 대일 인식이 다소 상승하는 추세도 나타나지만, 여전히 양국의 상호인식은 긍정보다는 부정에 더 가깝다. 특히, 한국의 대일 인식은 과거 수십 년간 줄곧 부정인식이 긍정인식보다 높게 나타났다.² 한일 인적교류 천만 시대를 이끌어온 한국인이지만, 일본 방문의 증가가 곧 대일 인식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의미이다.³

그렇다면, 왜 한 해에도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지 않는가? 한국인의 대일 인식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여왔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양국의 부정적 상호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특히 일본은 한국의 부정적인 대일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일본의 공공외교와 한일관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일본은 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

-
1. 한국관광공사. "국가별 방한관광객통계"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nat/getForTourDashForm.do>; JNTO. "訪日外客数の推移" <https://statistics.jnto.go.jp/graph/#graph--breakdown--by--country>
 2. 최은미. 2021. 「한국과 일본,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과 한일관계」. Asan Report, 아산정책연구원.
 3. 최은미. 2022. 「한일교류 천만시대의 착시현상_접촉이론을 통해 본 한일교류의 현황과 과제」 「일본연구논총」 55호, pp.63-89.

식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반면, 한국의 대일 인식은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범국, 패전국으로서의 이미지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편입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고, 일본은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평화주의 국가’,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일본’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왔으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본의 노력이 한국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였다. 여전히 많은 한국인은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사과하지 않는 일본’,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전쟁가능한 국가로 회귀하려는 일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을 ‘군국주의’ 국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일본에 대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정적인 대일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일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노력은 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둘째, 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그 나라에 대한 외교정책 수행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부정적 대일 인식은 한국의 대일외교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한일협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간의 과정을 조사 및 분석하여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향후 발전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일본의 공공외교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한국의 공공외교 정책을 점검하고, 일본 및 세계 각국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와 함의에 대해 살펴보기 위함이다. 전 세계적으로 K-pop, K-drama 등 한국 문화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또한 공공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공공외교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일본의 공공외교 및 대한국 사례를 통해 한국의 공공외교 전략 수립에 참고하고자 한다.

II. 한일교류의 현황과 한국의 대일 인식

1. 한일교류의 현황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로 인한 반일 시위와 일본관광 보이콧 등 한일관계 악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기 불과 1년 전, 2018년 한일 양국은 인적교류 천만(방일 한국인: 약 753만 명, 방한 일본인: 약 295만 명)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는 1965년 한일수교 당시 불과 1만여 명에 불과하던 것에서 1,000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⁴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비록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한국의 불매 운동과 일본여행 보이콧,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상호왕래가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한일관계 개선 속에서 다시금 회복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한일 민간교류는 어떠한 양상으로 발전해 왔을까.⁵

다음 [그림 2-1]과 [그림 2-2]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한일 민간교류 활성화 추진의 계기가 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발표된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25년간 한일 상호 방문객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림 2-1]은 방일 외국인 중 한국인, [그림 2-2]는 방한 외국인 중 일본인의 수와 비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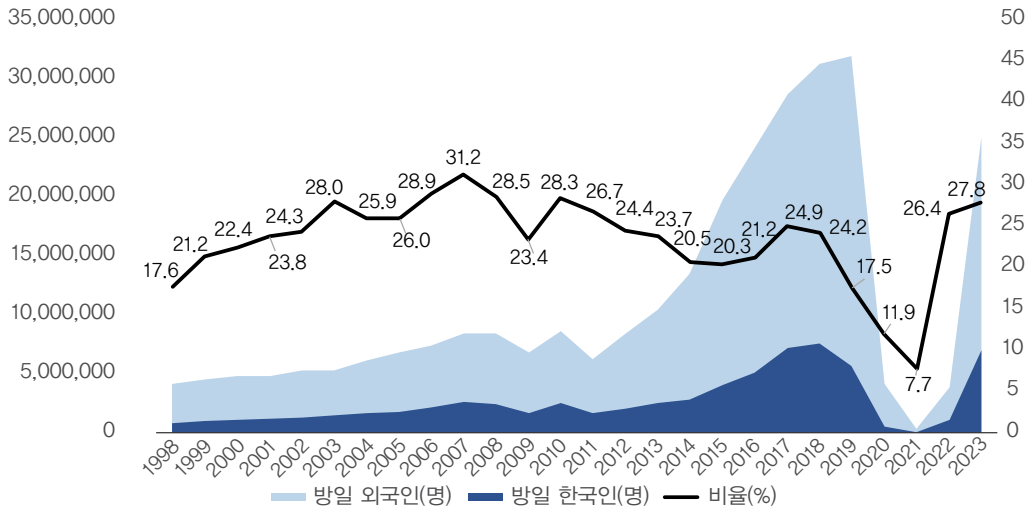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완화와 2023년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호 방문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이전의 양상을 보면 절대적인 수치에서도 ‘한국인의 일본 방문’이 ‘일본인의 한국 방문’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방일 외국인의 증가 속에서 방일 한국인 또한 유사한 양상으로 증가하며, 20~30%대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방한 일본인의 경우, 방한 외국인의 증가 속에서도 그 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 결과, 비율상으로 살펴볼 때, 방한 외국인 중 일본인의 비율은 1998년 46%를 상회하던 것에서 2016년에는 13.3%까지 감소한 것을 확인할

4. [연합뉴스] “지난해 한일 인적교류 1천만명 첫 돌파…국교 정상화 때의 1천배” (2019.2.1) <https://www.yna.co.kr/view/AKR20190201150200073> (검색일: 2023.11.10).

5. 최은미, 2022. “한일교류 천만시대의 착시현상_접촉이론을 통해 본 한일교류의 현황과 과제” 『일본연구논총』 55호, pp.63-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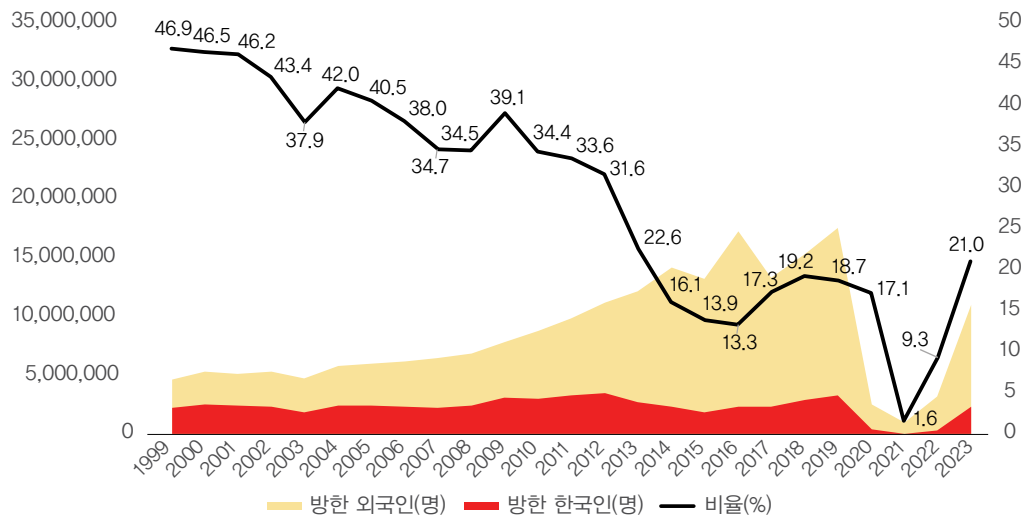
수 있다(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제 방문이 제한되었던 2020년과 2021년은 예외로 한다). 즉, 지난 25여 년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 한국인은 비교적 꾸준한 비율을 유지해 온 것과 달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 일본인의 비율은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방일 외국인 중 한국인 수 및 비율(1998~2023)



출처: JNTO 통계자료

[그림 2-2] 방한 외국인 중 일본인 수 및 비율(1998~2023)



출처: 한국관광공사 통계자료

여기에 일본의 인구 수가 한국의 약 2.5배에 달하는 점,⁶ 일본의 여권 보유율이 한국보다 낮은 점(2018년 말 기준, 일본 국민의 여권 보유율은 약 23.6%, 한국은 약 63%),⁷ 그리고 일본인의 한국 재방문 수가 한국인의 일본 재방문 수보다 많은 점⁸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수는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통계상으로 집계되는 수치보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수가 더 적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25년 동안 한일 간 상호방문객 총 인원 수는 증가하였으나, 절대적인 수치는 균등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상대적인 비율에서도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방문객 수 변화에는 환율, 관광정책, 관광지로서의 매력, LCC 운항(경제요인), 해당국의 정치·안보 상황(위험요인) 등도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5년간 한일교류는 비대칭적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양국이 축포를 올린 2018년의 천만 한일교류 또한 ‘일본인의 한국 방문’보다 ‘한국인의 일본 방문’이 더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인의 대일 인식과 해외에서의 일본에 대한 국가이미지

그렇다면, 한 해에도 수백만 명이 일본을 방문하며 한국인의 대일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그림 2-3]은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가 시행해 온 한일공동여론조사 결과 중, 한국의 일본에 대한 친근감과 신뢰감을 1996년부터 2023년까지 나타낸 것이며, [그림 2-4]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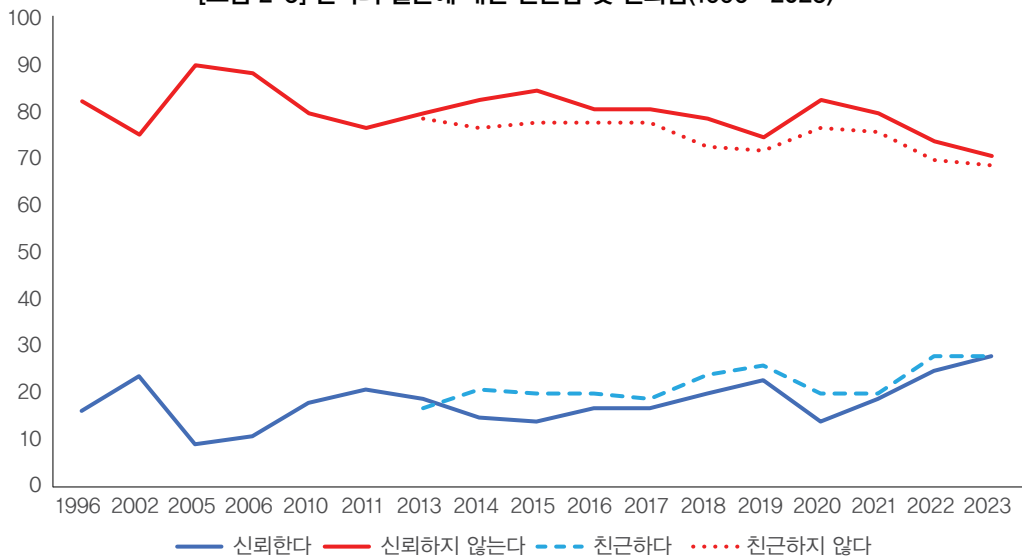
6. 2018년 기준, 일본의 인구 수는 126,529,100명이며, 한국은 51,361,911명으로 일본 인구가 한국 인구의 약 2.5배에 달한다.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 (검색일: 2022.3.29).

7. [조선일보] “전세계 ‘여권 파워’ 1위 일본...여권소지자는 전체 23%에 불과” (2019.12.1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8/2019121801093.html (검색일: 2022.3.20).

8. 2018년도 기준, 방한 외국인의 재방문 비율이 전체 57.8%를 차지하는 가운데, 일본인의 재방문 비율은 70.2%, 3년 평균 방한 횟수는 6.1회 나타났으며, 방한 목적, 여행 형태, 방한 횟수 등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차이로 1위로 조사되었다. 같은 시기, 방일 외국인의 재방문 비율은 59.4%로, 이 중 한국인이 3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국인의 일본 재방문 비율은 67.3%, 총 방문 횟수는 2~5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201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観光庁 観光戦略課 観光統計調査室, “訪日外国人消費動向調査【トピックス分析】1年以内に再来訪する訪日高頻度リピーター(観光・レジャー目的客)の動向” <https://www.mlit.go.jp/common/001301433.pdf> (검색일: 2022.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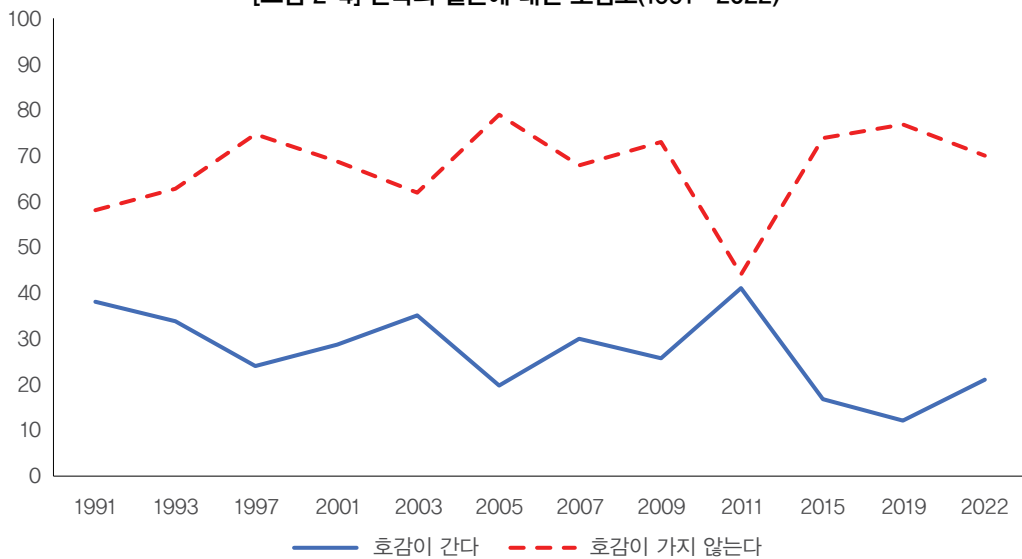
국갤럽의 여론조사 중,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1991년부터 2022년까지 취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 2-3] 한국의 일본에 대한 친근감 및 신뢰감(1996~2023)



출처: 요미우리신문-한국일보 한일공동여론조사

[그림 2-4]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1991~2022)



출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이를 통해 한국의 대일 인식은 지난 30여 년간 ‘부정’ 인식이 ‘긍정’ 인식을 상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⁹ 일반적으로 ‘호감도’는 인지적, 사회적 측면이 강하고, ‘친근감’은 개인적, 정서적 측면이 강해서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친밀감을 높인다.¹⁰ 그러나 한국의 대일 인식은 방일 한국인의 절대적인 수치 증가와 양국의 활발한 문화 및 인적교류에도 불구하고 친근감, 호감, 신뢰감 등이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나며,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한일교류의 증가에도 한국의 부정적인 대일 인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여러 국가의 대일 인식은 한국의 부정적인 대일 인식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한 예로, 일본 외무성에서는 일본의 전반적인 이미지와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를 관찰하기 위해 매년 「해외에서 대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하고, 이를 정책 입안에 참고하고 있다.¹¹ 주로 미국, 캐나다,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ASEAN 국가들, 인도, 호주, 몽골, 아프리카 3개국(케냐,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중남미 7개국(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볼리비아, 우루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중동 7개국(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터키), 중앙아시아 4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등이 그 대상이다.

이 중, 가장 최근 발표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는 응답자는 미국의 경우, 72%(오피니언 리더: 93%), 캐나다 68%, 유럽 5개국 69%, 아프리카 3개국 87%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¹²와 갤럽(Gallup)¹³ 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림 2-5]를 통해 알 수 있듯, 미국, 호주, 동남아 지역 등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긍정’이

9. 최은미, 2021, 「한국과 일본,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과 한일관계」, Asan Report, 아산정책연구원.

10. 이성환, 2009,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 그리고 한일관계,” 「제2기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pp.131-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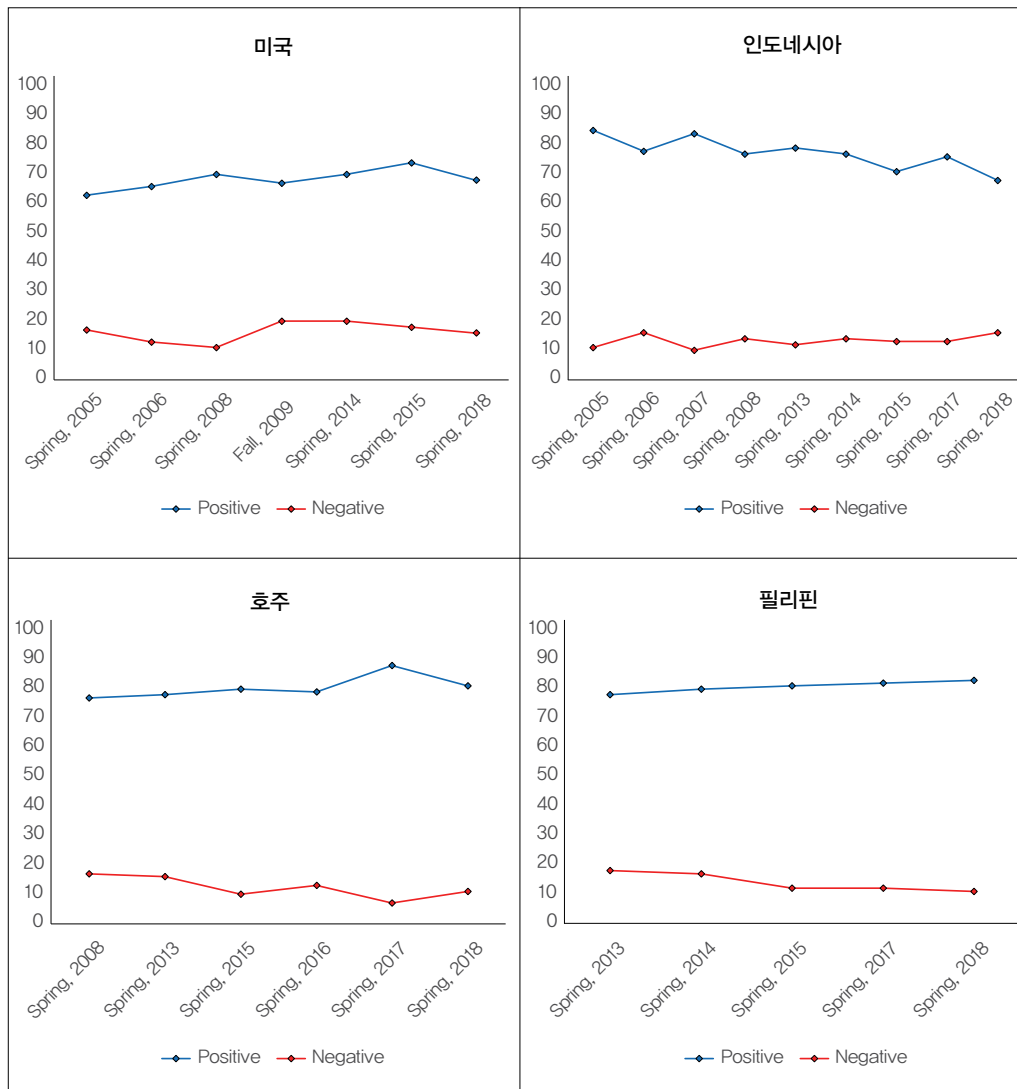
11. 外務省, “海外における対日世論調査”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pr/yoron.html>

12. Pew Research Center, “Topline Questionnaire” https://www.pewresearch.org/global/wp-content/uploads/sites/2/2018/11/Pew-Research-Center_Despite-Rising-Economic-Confidence-Japanese-See-Best-Days-Behind-Them-and-Say-Children-Face-Bleak-Future-TOPLINE_2018-11-12.pdf

13. Gallup, “Country Ratings” <https://news.gallup.com/poll/1624/perceptions-foreign-countries.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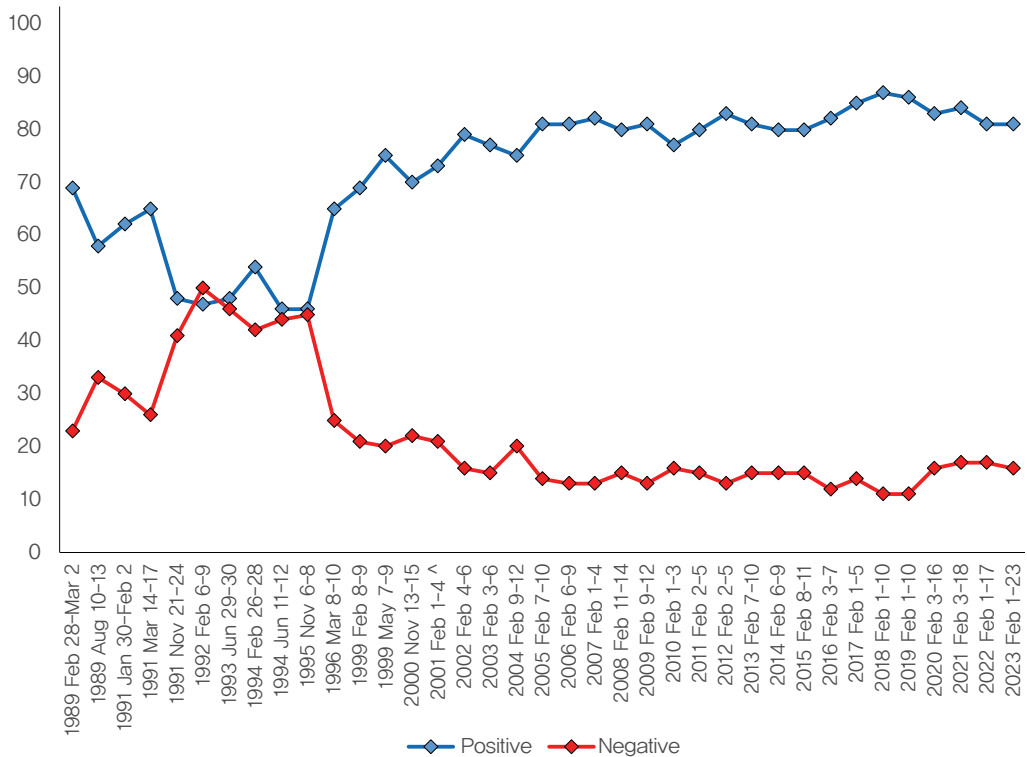
‘부정’을 상회하였으며, [그림 2-6]과 같이, 미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 30여 년간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 ‘긍정’ 인식이 ‘부정’ 인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 미국/호주/인도네시아/필리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2005~2018)



출처: Pew Research Center

[그림 2-6] 미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1989~2023)



출처: Gallup

비록 외무성에서 동일한 형태로 조사한 ‘한국의 대일 인식’ 결과는 찾을 수 없지만, 앞서 알아본 한국의 부정적 대일 인식을 통해 볼 때, 일본에 대한 해외 여러 국가의 인식과 한국의 대일 인식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가?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교류와 인식의 상관관계, 그리고 국가이미지

일반적으로 교류는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은 편견을 감소시키고, 관계를 향상시킨다.¹⁴ 하지만 상이한 집단 사이에 이루어진 의도치 않은 접촉

14.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Addison-Wesley.

은 오히려 긴장감을 형성하거나, 불안한 상황을 초래하여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¹⁵ 따라서 상이한 집단 사이의 접촉은 접촉 행위 그 자체보다는 접촉이 이루어지는 특정 상황 혹은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¹⁶ 나아가 집단 간 접촉의 결과가 상대에 대한 우호적인 행동과 태도 형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동등한 지위(equal status), 공동목적(common goals), 상호협력(intergroup cooperation), 권위·법·관습의 지원(the support authorities, law and custom) 등이 필요하다.¹⁷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25년간 한일 상호 간의 교류(보다 정확히는 ‘방문’, 혹은 ‘왕래’)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며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순 교류(방문/왕래)의 증가가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타국에 대한 인식은 첫째, 개인적 통로, 둘째, 관계적 통로, 셋째, 텍스트적 통로를 통해 형성된다.¹⁸ 먼저, ‘개인적 통로’란, 개인의 대상 국가 방문, 대인접촉,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앞서 언급한 교류(방문), 접촉 등 개인 차원의 인식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적 통로’란, 정부, 정부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의 매개체를 통해서 국가이미지가 형성되는 경우로, 상대국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정책과 연관된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적 통로’란, 매스미디어나 각종 관련 서적의 접촉을 통해서 국가이미지가 형성되는 경우로, 언론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타국의 이미지를 의미한다. 정보의 원천은 다양할 수 있으나, 그중 상당수는 정부로부터 나온다. 다른 나라에 대한 정부의 입장, 태도, 정책 등에 대한 책임 있는 당국자 혹은 정책 결정자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며, 상대국에 대한 인상, 인식,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통찰력과 전문성에 기반한 정치인, 학자, 전문가, 언론인 등 언론주도층(오피니언 리더)의 의견 등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처럼 국가이미지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형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에서의 일본에 대한 이미지 형성은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개

15. Bennett, C. I. 2007.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6th Edition, Person Education.

16. Amir, Y. 1969. "Contact hypothesis in ethnic relation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71(5): 319-342.

17. Brewer, M. B., & Brown, R. J. 1998. "Inter-group relations,"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2 (4th ed.), New York: McGraw-Hill.

18. 염성원·오경수. 2003.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활동 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 『PR연구』 7(2), pp.98-142.

인적 통로' 외에, 정부의 인식과 정책에 기반한 '관계적 통로'와 이를 전달하는 '텍스트적 통로'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대일 인식과 대일 정책만큼, 일본의 대한국 인식과 대한국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일본은 한국의 부정적인 대일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였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공공외교의 목표가 상대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라고 할 때,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떠한 대한국 공공외교 정책을 추진해 왔는가?

Ⅲ. 일본의 공공외교

1. 공공외교란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외교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대중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분야로, 다른 나라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노력,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교류, 외교 업무의 보고와 정책에 미치는 영향, 외교관과 외신 간 의사소통, 문화 간 의사소통 과정(Edmund A. Gullion, 1965)”¹⁹을 의미한다. 공공외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립된 견해는 부재하나, 이와 같은 정의는 공공외교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효하다.²⁰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외교를 “외국 국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으로 정의한다.²¹

전통적인 외교가 정부 간 소통과 직접적인 협상 과정을 일컫는 것이었다면, 공공외교는 타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원조, 지식, 언어,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언론 매체나 각종 교류 프로그램 등의 기제를 활용하여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고, 감동을 주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²²

공공외교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다. 외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활동이

19. 전직 외교관이자 미국 터프츠 대학 플래처 스쿨(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at Tufts University) 학장인 에드먼드 걸리온(Edmund A. Gullion)이 '에드워드 머로우 공공외교센터(Edward R. Murrow Center for Public Diplomacy)' 설립 당시 사용했다. Nicholas J. Cull, “Public Diplomacy” before Gullion: The Evolution of a Phrase” (2006.4.18) USC Center on Public Diplomacy. <https://uscpublicdiplomacy.org/blog/public-diplomacy-gullion-evolution-phrase> (검색일: 2022.12.1).

20. 공공외교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46년 UN 정기총회에서 벨기에 외교장관에 의해서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타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가 없었던 시기여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 김화정. 2020. “똑똑, 공공외교” KF 공공아카데미. 「처음 만나는 공공외교」, p.19.

21. 외교부. “공공외교란” https://www.mofa.go.kr/www/wpge/m_22709/contents.do (검색일: 2022.12.1).

22. 외교부. “공공외교란” https://www.mofa.go.kr/www/wpge/m_22709/contents.do (검색일: 2022.12.1).

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주체, 수단 등에서 변화해 왔다. 초기 공공외교의 실행 ‘주체’는 중앙 및 지방 정부에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NGO, 기업, 개인 등 민간 행위자들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수단’은 초기의 공공외교가 TV, 라디오, 신문과 같은 매체와 교육·문화·학술 분야 등의 교류프로그램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면, 점차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다양한 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과거의 일방향으로 이루어졌던 공공외교 활동이 점차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표 3-1] 참조).²³

[표 3-1] 전통외교/공공외교/신공공외교 비교

	전통외교	(구) 공공외교	신공공외교
주체	자국 정부	자국 정부	정부(중앙/지방) 민간(기업, 시민, NGO 등)
대상	타국 정부	타국 민간	정부, 민간
수단	정부 간 공식 대화 및 협상	라디오, TV, 신문, 교류프로그램	실시간 뉴스, 인터넷 기반 플랫폼(SNS, YouTube, Twitter, Instagram 등) 온/오프라인 교류
관계	수평적	일방향 전달, 이해 도모	쌍방향 소통, 신뢰 및 관계구축

출처: 윤석준, 2020. 「공공외교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p.22; 최광진,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민·공공외교」 광
진문화사 p.28; 김화정, 2020. 「뚝뚝, 공공외교」 KF 공공아카데미, 「처음 만나는 공공외교」, p.44 등 참고하여
일부 발췌 및 필자 재구성

한편, 공공외교의 가장 전통적인 영역은 문화, 음식, 교육, 언어, 스포츠, 관광 등이다. 이 유형은 상대국 대중에게 다가가기에 가장 용이하고, 그 국가에 대한 친밀감과 호감도 등 우호적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K-pop, K-movie, K-food 등 한국의 문화가 외국인들의 일상에 스며든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언어와 교육을 매개로 한 유학, 전문가 간 인적교류, 학술행사 등은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고, 해당 국가와의 네트워크 및 정서적 유대감 강화에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개발, 안보 등 국제사회

23. 윤석준, 2020. 「공공외교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pp.21-24.

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정부가 수행하는 영역이 있다. 빈곤, 기아, 기후 변화, 에너지, 경제성장 등 지속가능개발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등은 국가 간 협력뿐만 아니라, 해당국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2. 일본의 공공외교: 전후 일본 공공외교의 시작과 역사적 전개 과정

일본은 자국 외교정책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실시 및 일본 국민의 외국 활동 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원활한 교류를 통한 일본에 대한 관심, 이해, 신뢰,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교정책 및 일반 상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일본 문화 소개, 인적교류, 해외에서의 일본어 보급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²⁴ 이는 1980년대 후반 조셉 나이(Joseph Nye) 교수에 의해 고안된 ‘소프트파워(soft power)’²⁵ 개념에 기반하며, 평화주의, 문화 등 소프트파워의 잠재력을 통해 세계에서 일본의 지위를 높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²⁶ 이와 같은 일본의 공공외교는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어 왔을까?

1) 1950년대: 부정적 이미지 탈피를 통한 국제사회 편입 노력

전후 일본의 공공외교는 패전국, 전범국, 군국주의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민적 자부심과 국제적 신뢰의 회복을 통해 평화주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전후 1946년 외무성 조직 개편 과정에서 다시 설치된 정보과(Department of Information)²⁷가 이를 담당하였다. 당시 국제사회로의 복귀 및 주권 회복이 시급했던 일본은 그 첫 단계로 유네스코 회원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1951년 7월 유네스코의 정회원이 되었다. 또한 일본 외교의 상당 부분이 미국과의 관계 증진에 집중되어 있던 만큼, 대부분의 공공외교는 미국을 대상으로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문화외교와 공공외교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문화활동 및 문화교류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

24. 外務省. “広報文化外交”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index.html>

25. 군사력 혹은 경제력으로 대변되는 하드파워(hard power)의 반대 개념으로, 강제나 보상에 의해서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을 의미한다. Joseph S. Nye, Jr. 1990. Soft Power. *Foreign Policy* No. 80, pp.153-171.

26. 外務省. “広報文化外交” <https://www.mofa.go.jp/mofaj/comment/faq/culture/gaiko.html>

27. 정보과는 1920년 외무성 창설 당시 함께 설치되었다가 1923년 문화과로 확대 개편되었다.

지만 전후 피폐해진 경제 상황 등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대외 문화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일본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정도였다.

2) 196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 속 평화국가, 경제발전국가, 경제협력선도국가 이미지 구축

196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1952년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의 5분의 1에 불과하였으나, 1960년대 일본의 수출은 연간 18.4%에 이르는 속도로 성장하였고, 1968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치러진 1964년 도쿄올림픽,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는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경제력과 발전된 과학기술 능력을 가진 국가로 거듭났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전쟁의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대외적으로 군국주의 청산, 평화국가, 경제발전국가, 공적개발원조(ODA) 등 경제협력과 기술 발전을 선도적으로 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일본은 문화외교를 통해 전전 군국주의 국가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의 이미지 전환을 꾀하였다. 이에 따라 사무라이 정신이나 봉건 전통 시대의 모습보다는 다도와 꽃꽂이 등의 전통을 전파하며, 고요하고, 잔잔하며, 자연과 평화를 사랑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²⁸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내에서도 이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을 맡고 문화 발전을 해야 한다는 인식도 생겨났고,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조직 구조의 변화도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외무성은 1964년 조직 개편을 통해 문화부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1968년에는 문부성 내 문화국과 문화재보호위원회를 통합한 문화청(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ACA)이 창설되기도 하였다.²⁹

3) 1970년대: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의 설립과 대동남아 ODA 공공외교 전환

1970년대는 일본 공공외교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 시기였다. 경제적 성장에 따라 아시아 각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감을 회복하였고, 동

28. Kazuo Ogoura, 2012, "From Ikebana to Manga and Beyond: Japan's Cultural and Public Diplomacy Is Evolving" *Global Asia*, Vol.7, No.3, pp.24-28. https://www.globalasia.org/v7no3/cover/from-ikebana-to-manga-and-beyond-japans-cultural-and-public-diplomacy-is-evolving_kazuo-ogoura

29. 오가와 타다시, 2013. "일본 공공외교의 기원과 발전" 낸시 스노우, 「21세기 공공외교 핸드북」, pp.575-598.

시에 일본의 정치와 경제가 국제 상호의존 속에 존립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의 경제적 부상이 일본에 대한 위협론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1970년대 초 미일 무역불균형 문제와 1972년 태국의 일본상품불매운동, 1974년 1월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총리의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 일어난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의 대규모 반일 시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일본의 경제진출에 대한 강한 반발이 표면화되며, 기존까지의 경제중심 외교의 한계가 노정된 것이다.³⁰

그러나 이러한 반발과 비판은 오히려 일본의 문화외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따라 자국에 대한 외국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국가 간 상호이해와 우호관계 촉진과 문화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된 것이다.³¹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 JF)의 설립(1972)을 추진하며 언급한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당시 외무대신의 발언은³²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일본의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적, 문화적 교류의 비약적 확대의 필요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최근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방면에서 이유 없는 경계심이나 부당한 오해도 대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대외 활동이 경제적 이익의 추구에 치우친다고 하는 비판, 나아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염려하는 소리마저 들립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평화국가,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나라의 올바른 모습을 해외에 전하고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외교에 있어서의 급선무입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독특한 문화적 전통과 언어의 장벽 때문에 외국과의 의사소통이 곤란한 것을 생각하면, 이는 한층 더 필요하고 긴급한 사항입니다. 우리 국민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활약을 함에 따라 세계 속의 일본인으로서 세계의 실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30. 안세영. 2010. “일본 공공외교의 특징에 관한 연구 - 일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1-22.

31. 이연정 외. 2004. 「일본국제교류기금의 대외문화 전략」,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91.

32. 外務省. “国会における内閣総理大臣および外務大臣の演説-第68回国会における福田外務大臣の外交演説”(1972.1.29)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72/s47-shiryu-1-5.htm#k331> (검색일: 2023.12.27).

정부로서는, 이를 위해, 새롭게 국제교류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내일 예산안에서의 지출을 요청합니다. 저는, 향후에도 국민 각계각층의 폭넓은 지지와 협력 아래에 이 기금을 한층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이처럼 여러 국민 간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맞닿는 상호 이해 증진에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외교에 부과된 큰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1972년 1월 29일. 후쿠다 다케오 외무대신 연설 중, 일부 발췌(필자 번역)

이처럼 국제교류기금의 창설은 시대와 국가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1972년 3월 국제교류기금법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같은 해 5월 법안이 통과하였으며, 10월 민간기업 60억 엔과 일본 정부 50억 엔으로 외무성 산하의 특수법인 국제교류기금이 설립되었다. 국제교류기금은 현재까지도 일본 공공외교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반일 감정이 심하던 동남아 지역에 대해 후쿠다 다케오 당시 총리는 1977년 아시아 국가 순방 중 필리핀에서 후쿠다 독트린(福田ドクトリン)이라 불리는 對ASEAN 외교의 3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첫째, 일본은 군사대국이 되지 않으며, 둘째, ASEAN 각국의 마음과 마음을 아우르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셋째, 일본과 ASEAN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일본은 ASEAN 지역에 대한 문화외교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1978년에는 아세안문화기금(ASEAN Cultural Fund)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1975년에는 문화원조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동남아 지역의 문화유적지 보존과 복구 활동에도 기여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제교류기금을 기반으로 일본문화 소개, 일본어 보급, 문화협력, 국제교류 이벤트 개최, 일본연구 진흥 등을 실시하였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ODA 사업, 인재교류 및 국제협력 등 상호교류 등을 실시하며 경제력에 버금가는 문화적 위상과 매력적인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4) 1980년대: 국제공헌을 위한 일본의 역할 요구와 일본의 ODA·문화외교

1980년대는 ‘국제화’, ‘국제공헌’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본 공공외교가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였다. 특히, 국제적으로 일본어 학습자가 증대하며 일본어 보급을 강화했다. 이에 따

라 ‘해외에서의 일본어교육’이 국제교류기금의 최우선 사업이 되기도 하였다. 1982년 일본 정부는 국제교류기금의 일본어 프로그램을 ODA 예산을 통해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1984년 국제교류기금과 일본국제교육협회의 공동 주최로 최초의 ‘일본어능력 검정시험 (Japanese-Language Proficiency Test, JLPT)이 실시되었으며,³³ 1987년 일본의 지방 자치단체에서 외국 청년을 초청해 국제교류업무 및 어학 지도를 담당하게 하는 JET(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프로그램 등도 시작되었다. 조직 변화도 나타났다. 1984년 외무성 정보문화국 내 2개 과를 개편하여 문화교류부를 설치하였으며, 1989년에는 국제교류기금의 부속센터로 일본어국제센터가 설립되며 일본어 교사의 연수, 해외에서의 초청, 일본어 교재의 개발 및 기증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국제문화교류’가 일본의 국제공헌에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문화교류를 기반으로 한 일본의 공공외교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일본의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 요구로 이어졌고, 당시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서 일본은 국제무역 흑자가 커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일본기업의 진출을 도모하는 상업주의적 원조라는 비판과 국제사회에 환원할 것에 대한 압력을 받았다.³⁴ 이에 일본은 제3세계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상을 제시하는 등 긴장 상태의 세계 각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역할을 자임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 5월,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당시 총리에 의해 발표된 ‘국제협력구상(國際協力構想)³⁵은 이러한 인식을 잘 반영한다.

“저는 총리 취임 이래, 내각의 최대 목표로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의 건설을 내세웠습니다. 선진 민주주의국가의 주요한 일원인 우리나라에게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국제사회의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증대된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완수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념에 근거해, 저는, 다음의 3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국제협력구상」을 이 자리에서 세계에 밝히고 싶습니다. 첫째는, ‘평화를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나라는 평화를 국시(國是)로 하고 있어

33. JLPT 최초 실시 당시 15개국 약 7,000여 명이 응시하였으나, 이후 응시자수가 점점 증가하여 2005년에는 50개국, 약 35만 명, 2019년에는 110만 명을 넘어섰다.

34. 강철구·홍진이. 2009. “일본 국제원조정책의 배경과 특징에 대한 고찰.” 『행정논총』 47(3), p.233.

35. 外務省. “ロンドン市長主催午餐会における竹下内閣総理大臣スピーチ”(1988.5.4)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88/s63-shiryu2-5.htm> (검색일: 2023.12.30).

헌법상으로도 군사면의 협력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라가 세계의 평화에 대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라로서는, 정치적 및 도의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협력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에의 적극적 참가, 요원의 파견, 자금 협력 등을 포함한, 새로운 「평화를 위한 협력」의 구상을 확립해 국제 평화의 유지 강화에의 공헌을 높여 가겠습니다. 둘째는, ‘국제문화교류의 강화’입니다. 우리 나라가 세계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관심에 답하고,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의 적극적인 교류 활동에 힘을 쏟지 않으면 안됩니다. 동시에 우리 나라는, 세계적인 문화 유적의 보존 및 문화의 진흥을 위해 국제 기관과 협력하는 적극적 공헌을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확충’입니다. ODA는 우리 나라의 국제적 공헌에서 가장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3번에 걸쳐 ODA 확충을 위한 중기 목표를 내걸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ODA의 양과 질, 양자에서 개선을 도모해 보다 적극적인 공헌을 실시해 갈 생각입니다.” ... 중략 ... “저는 이 연설의 서두에서,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 기둥의 하나로 국제문화교류를 들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교류는 체제나 가치관의 차이를 넘어 민족과 민족이 서로 존경하고 이해하는 기초를 만들고, 정치, 경제 등의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화는 모두 인류 공통의 재산으로서 그 보편적 가치를 넓게 각 국민이 누려야 합니다. 문화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관용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열린 국제사회, 나아가 국제공조와 세계평화의 구축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또한 다양한 문화의 상호교류는 국제사회의 발전의 활력을 낳을 것입니다. 저는 각 국민의 뛰어난 문화를 지키며 세계의 다른 문화 간 교류를 촉진해 21세기를 향해 세계의 문화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 것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 1988년 5월 4일. 다케시타 노보루 총리 연설 중, 일부 발췌(필자 번역)

이처럼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이라는 큰 비전을 내걸며, 일본은 ‘평화를 위한 협력 강화’, ‘국제문화교류 강화’, ‘공적개발원조 확충’의 세 가지 틀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까지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던 경제 중심의 일본 ODA의 성격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문화교류가 일본 외교의 중요한 목표이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간담회(国際文化交流に関する懇談会)’가 최초

의 총리 간담회로 설치되었으며, 1989년 3월에는 국제교류기금의 예산 증액과 인원 증가, 같은 해 9월에는 ‘국제문화교류행동계획(國際文化交流行動計畫)’³⁶이 책정되기도 하였다.

5)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와 탈냉전기 일본 공공외교의 전환

1990년대 미소 냉전이 종식되고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일본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강조됨에 따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0년대 후반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경제 침체 또한 그동안 경제력을 기반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공공외교를 실천하며 국제적 지위를 유지해 왔던 일본 공공외교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 초반 걸프전에서 전쟁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130억 달러를 부담하고도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수표책 외교(checkbook diplomacy), 무임승차론으로 비판받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관여가 더욱 강조되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며 ‘얼굴 없는 일본(faceless Japan)’이라는 조롱 섞인 비판을 받으며, 일본은 자국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국제사회에 공헌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1991년 4월 설립된 국제교류기금 일미센터(Center for Global Partnership, CGP)³⁷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은 미일 양국의 공동에 의한 세계 공헌, 미일관계의 긴밀화를 목표로, 미일협력에 의한 글로벌 과제 해결과 상호 이해 촉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CGP는 개발도상국의 민주화, 환경 문제, 전염병 등 공통 관심사에 관해 일본과 미국 간의 지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0년에 설립된 국제교류기금 아세안문화센터(1990~1995)가 1995년 국제교류기금 아시아센터(The Japan Foundation Asia Center, 1995~2004)³⁸로 확대·재편되어 아시아 국가들과 예술문화교류 및 지적 교류 사업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존재감이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1990년대 초 개발도상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 내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일본의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36. 國際文化交流推進會議(編), 1989, 「國際文化交流行動計畫」, 國際文化交流推進會議.

37. 2022년 4월 조직개편에 의해 국제대화부(Global Partnership Department)로 통합되었다. 國際交流基金日米交流センター, <https://www.jpf.go.jp/cgp/notice.html> (검색일: 2023.12.30).

6) 2000년대 이후: 문화와 경제의 쿨재팬(Cool Japan) 전략

2000년대 이전까지 일본의 공공외교가 문화교류를 기반으로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을 목표로 한 소극적인 특징을 보였다면, 2000년대 이후 일본의 공공외교는 일본의 매력을 부각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과거 일본이 전범국으로서 어둡고,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민주주의 선진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성숙한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했다.

2004년에 발행된 「외교청서」에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パブ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라는 용어가 공식문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도 이와 같은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해 외무성은 구조개편을 통해 기존의 대외홍보와 문화교류 조직을 통합한 ‘홍보문화교류부(Public Diplomacy Department, PDD)’를 새롭게 설립하였다. PDD는 2012년 8월 1일 홍보문화외교전략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歐米諸国でも、マスメディアを含む通信手段の発達により、諸外国の国民世論に自国の魅力をを用いて直接働きかけるパブ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対世論外交、あるいは対市民外交)が注目され、実践されている”

“구미 제국에서도 매스미디어를 포함한 통신수단의 발달에 의해, 여러 나라의 국민 여론에 자국의 매력을 활용하여 직접 작용하게 하는 퍼블릭 디플로머시(대여론외교, 혹은 대시민외교)가 주목받고, 실천되고 있다.”

- 2004년 「외교청서」³⁹ 중, 일부 발췌(필자 번역)

38. 국제교류기금의 구(旧)아시아센터는 1995~2004년까지 활동하였다. 이후, 새로운 아시아센터가 2014년 4월부터 시작되어 활동하였으나, 2022년 4월 기금의 조직개편으로 활동을 종료하였다. 기존 사업은 새로운 ‘국제대화부’와 ‘일본어파트너스사업’에서 지속된다. 国際交流基金アジアセンター. <https://asiawa.jpf.go.jp/>; 国際交流基金. “【お知らせ】国際交流基金(JF)の組織改編について” https://www.jpf.go.jp/j/about/notice/notice_reorganization.html (검색일: 2023.12.30).

한편,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약 20여 년간 일본의 공공외교를 대표하는 용어로는 ‘쿨재팬(Cool Japan, クール・ジャパン: 멋진 일본)’을 들 수 있다. ‘쿨재팬’이란 세계로부터 ‘쿨(cool: 멋지다)하다’고 여겨지는 일본의 매력을 의미하는데, 1997년 영국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의 1990년대 활기찬 모습의 영국문화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한 ‘쿨 브리타니아(Cool Britannia)’를 모티브로 한다. 이미 세계에 잘 알려진 일본의 음식,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 문화 등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관심 사안과 변화를 반영하여 무한하게 확대해 나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공감’을 통해 일본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일본에 대해 애정을 갖는 외국인들을 증가시킴으로써 일본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⁴⁰

2002년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 게재된 더글라스 맥그레이(Douglas McGray)의 “Japan’s Gross National Cool”⁴¹이라는 글 또한 이러한 논의에 힘을 실었다. 맥그레이는 21세기에는 한 나라의 국력이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s, GNP)과 같은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양식, 가치관, 미적 감각, 철학, 이미지 등 문화적 가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한 국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cool)를 나타내는 GNC(Gross National Cool: 국민총매력지수, 국민문화총생산)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 여기에서 일본을 GNC가 높은 국가로 평가했다. 이처럼 당시 일본의 문화콘텐츠, 문화외교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1990년대 후반 버블경제가 붕괴하고, 경기 침체와 해외시장 축소,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안고 있던 일본에게 문화콘텐츠 및 문화외교를 통한 비즈니스 추진과 일본의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새로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바탕이었다.

2004년 1월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 문화콘텐츠와 비즈니스 진흥을 연계하는 방침을 표명한 것과 2004년 6월 문화청 관방장관심의관에 의해 발표된 “콘텐츠 비즈니스의 비약적 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처(コンテンツビジネスの飛躍的拡大に向けた 政府の取り組み)”⁴² 내 향후 콘텐츠 비즈니스 진흥을 위한 이념 중 하나로 ‘쿨재팬’이 제시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39. 外務省, 「外交青書」(平成16年版)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04/hakusho/h16/index.html> (검색일: 2023.12.30).

40. 内閣府, “クールジャパン戦略について” https://www.cao.go.jp/cool_japan/about/about.html (검색일: 2023.12.30).

41. Douglas McGray, 2002. “Japan’s Gross National Cool,” *Foreign Policy* No.130, pp.44-51.

“世界で高く評価されている映画、アニメ、ゲームソフトなどの 著作物を活用したビジネスを振興し、文化、芸術を生かした豊かな国づくりを進めてまいります”

“일본의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저작물을 활용한 비즈니스 진흥을 통해 문화, 예술을 활성화시켜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2004.1.19 고이즈미 총리 중의원본회의 시정방침연설⁴³ 중,
일부 발췌(필자 번역)

한편, 이러한 개념은 고이즈미 정권(2001.4~2006.9)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 발전되었다. 2008년 음식문화, 지역 브랜드, 패션, 애니메이션, 음악, 방송 프로그램, 전통문화 등 일본의 매력과 강점을 ‘일본 브랜드’로서 효과적으로 발신해 나가기 위해 ‘콘텐츠·일본 브랜드 전문조사회(コンテンツ・日本ブランド専門 調査会)⁴⁴ 등이 설치된 것이 한 예이다.

이처럼 쿨재팬은 음악, 영화, 만화 등 문화 콘텐츠와 지역의 경제 및 사회, 그리고 관광을 연계해 일본 매력을 홍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해외에서 일본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을 일본 국내로 유입해 국내 소비 촉진과 일본 소비재에 대한 관심을 증대해 수출에도 기여한다. 매력적인 자원을 활용해 해외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관광객 소비도 촉진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⁴⁵ 그리고 이와 같은 국가 주도 문화·경제 전략인 ‘쿨재팬’은 일본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 나가고, 일본경제의 활력을 이끄는

42. 森口泰孝, “コンテンツビジネスの 飛躍的拡大に向けた 政府の取り組み” 文化庁主催 コンテンツ流通促進シンポジウム (2004.6.28) https://www.bunka.go.jp/chosakuken/seminar/contents_sympo/keynote/pdf/KeynoteSpeech.pdf (검색일: 2023.12.30).

43. 衆議院, “小泉内閣総理大臣の施政方針演説”. (2004.1.19)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annainsf/html/statics/ugoki/h16ugoki/02honkai/59honkai.htm (검색일: 2023.12.30).

44. 首相官邸, “コンテンツ・日本ブランド専門調査会”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contents_brand/index.html

45. 중기이코노미, “소비재로 일본을 알린 ‘쿨재팬(Cool Japan) 전략” (2016.8.28)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6249> (검색일: 2023.12.30).

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는 기존의 경제력 등 하드파워(hard power)의 쇠퇴를 보완하기 위한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개념이 도입된 것이자,⁴⁶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자동차, 전자기기 등 일본의 전통적인 수출산업의 경쟁력 하락에 대응하고, 제품, 식품, 관광 등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되어 있었다.

한편, ‘쿨재팬’ 전략이 일본 정부의 공식조직에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6월, ‘쿨재팬’ 담당부서로 경제산업성 내 ‘쿨재팬해외전략실(クールジャパン海外戦略室)’을 설치한 2010년부터이다.⁴⁷ 이후,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2차 내각에서 쿨재팬 전략은 더욱 강화되었다. 아베 총리는 ‘쿨재팬전략담당대신(クールジャパン戦略担当大臣)’을 신설하였고, 2013년에는 내각부 부대신, 정부관을 중심으로 외무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국토교통성, 농수산산업성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쿨재팬 관계 부처 연락·연계회의(クールジャパン関係府省連絡・連携会議)⁴⁸, 쿨재팬 전략 강화를 위해 경제산업성하의 민관합동펀드인 ‘쿨재팬기구(クールジャパン機構, Cool Japan Fund)⁴⁹를 설치하였다. 당시의 쿨재팬 전략은 첫째, 세계 각국과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국내적 성장을 도모하고, 둘째,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인들의 대일 이해를 높여 일본과 세계를 연결하며, 셋째, 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세계를 돕는 일본으로 거듭나는 것이었다.⁵⁰

이후의 쿨재팬 전략은 경제성장 실현과 전략 심화를 목표로 한다. 2015년 6월에는 ‘쿨재팬전략추진회의(クールジャパン戦略推進会議)’에서 ‘쿨재팬전략관민협동이니셔티브(クール

46. KIEP. 2018. “일본·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18, No.3. pp.1-23.

47. 知的財産戦略本部. 「クールジャパン戦略」(2019.9.3) https://www.cao.go.jp/cool_japan/about/pdf/190903_cjstrategy.pdf (검색일: 2023.12.30).

48. クールジャパン関係府省連絡・連携会議. https://www.cao.go.jp/cool_japan/kaigi/renkeirenaku/renkeirenaku.html

49. 현재 쿨재팬기구는 연이은 투자 실패로 2022년도 말 누적적자가 356억 엔에 이르면서 통폐합의 위기에 놓여있다. 朝日新聞. “巨額赤字のクールジャパン機構 首相「経営改善求めること必要」”(2023.10.31) <https://www.asahi.com/articles/ASRB04J0BRB0UTFK00F.html> (검색일: 2023.12.30).

50. Cool Japan Movement Promotion Council. 2014. *Cool Japan Proposal*. https://www.cao.go.jp/cool_japan/english/pdf/published_document3.pdf

ジャパン戦略官民協同イニシアチブ)⁵¹가 제시되었고, 같은 해 12월에는 쿨재팬 전략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내각부 산하에 ‘쿨재팬관민연대 플랫폼(クールジャパン官民連携プラットフォーム)⁵²을 설치하여 민간 전문가와 실무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2018년 6월에는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에서 ‘지적재산전략 비전(知的財産戦略ビジョン)’으로 쿨재팬을 두고, 「지적재산추진계획2019(知的財産推進計画 2019)」⁵³에 포함시켰다. 새로운 쿨재팬 전략으로는 “세계인의 시선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재와 협동하면서”, “유연한 사고로”, “일본의 매력을 배우고 발견하고 갈고 닦아 전달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일본 공공외교로서 쿨재팬 전략(담당: 내각부 산하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은 현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에서도 이어지고 있다.⁵⁴

일본의 공공외교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변화 및 발전해 왔다. 일본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공공외교의 목표와 주요 활동이 변화했고, 그 흐름이 현재에 이어지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3-2]와 같다.

-
51. 쿨ジャパン 전략추진会議. “쿨ジャパン 전략官民協同イニシアチブ (2015.6) https://www.cao.go.jp/cool_japan/kaigi/senryakusuishin/pdf/20150617_initiative_honbun.pdf (검색일: 2023.12.30).
52. 쿨ジャパン官民連携プラットフォーム. https://www.cao.go.jp/cool_japan/platform/platform.html (검색일: 2023.12.30).
53.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推進計画 2019」 (2019.6.21)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hizaikeikaku20190621.pdf> (검색일: 2023.12.30).
54. 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쿨ジャパン 전략”. https://www.cao.go.jp/cool_japan/index.html (검색일: 2023.12.30).

[표 3-2] 전후 일본 공공외교의 전개과정

시기	일본 대내외 환경	목표	주요 활동 및 내용
1950년대	전후질서 형성	패전국, 전범국, 군국주의 이미지 탈피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의 전통문화 소개
196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	평화국가, 경제발전국가, 경제협력선도국가 이미지 구축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경제원조외교
1970년대	경제 중심 외교 한계 표출, 경제적 부상에 따른 '일본 위협론' 대두	평화국가,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일본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불식	국제교류기금(JF) 설립: 일본문화 소개, 일본어 보급, 문화협력, 국제교류, 일본연구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 및 ODA 사업, 인재교류, 문화원조프로그램
1980년대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공헌 요구 증대	평화를 위한 협력 국제문화교류 강화 공적개발원조 확충	일본어 보급 강화 경제원조 중심에서 문화 및 인적교류 ODA로 성격 변화
1990년대	탈냉전기 일본 역할론, 걸프전 cf. 수포책 외교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및 역할 확대	국제교류기금 일미센터 설립, 세계 공헌 및 글로벌 과제 해결 노력
2000년대 이후~현재	장기불황 및 경기침체, 해외시장 축소, 저출산고령화 등 과제 동일본대지진	문화콘텐츠/문화외교를 국가 전략적 자산 활용 일본의 브랜드 가치 향상	쿨재팬(Cool Japan) 문화콘텐츠/문화외교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

출처: 김태환(2019)⁵⁵ 참조하여 필자 작성

3. 일본의 공공외교: 목표, 추진체계, 시행주체, 주요활동

외무성에서 발표한 「2023 외교청서」에 의하면,⁵⁶ 일본은 대외 발신의 최전선에 있는 재외 공관의 체제강화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첫째, 일본의 정책이나 대응 및 입장 발신, 둘째, 일본의 다양한 매력 발신, 셋째, 친일파·지일파 육성이라는 세 가지 축에 기반해 전략적인 대외 발신을 실시하고 있다.

1) 목표 및 추진체계

(1) 일본의 정책 및 대응, 입장 발신을 통한 대일 이해 촉진 및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 강화
일본의 공공외교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과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유지·강화에 대한 일본의 공헌, 역사 인식, 영토·주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신하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며,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의 기자회견, 인터뷰, 기고, 외국 방문지 및 국제회의에서의 연설 등을 통해 일본의 입장과 생각에 대해 발신한다. 또한 재외공관에서도 역사 인식이나 영토·주권을 비롯한 폭넓은 분야에서 일본의 입장이나 사고방식에 대하여 각국 정부·국민 및 미디어에 발신하고 있으며, 외신에 의한 잘못된 보도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재외공관 대사, 총영사 및 본부 외무대변인의 이름으로 사실에 근거한 반론 게시나 보도 정정 신청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책 홍보 동영상 등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와 SNS 등을 통한 정보 발신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본 입장이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지식인이나 싱크탱크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발신력이 있는 지식인이나 미디어 관계자를 일본에 초청하여 정부 관계자 등과의 의견 교환이나 각지 시찰, 취재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인 지식인의 해외 파견을 실시하고, 해외 연구 기관 등에 의한 일본 관련 세미나 개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욱일기에 대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설명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일본의 다양한 매력 발신을 통한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

일본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친밀감을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방일 관광 촉진 등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문화사업을 실시하고,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초국경적 인적교류가 재개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상황에 맞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문화교류 등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재외 공관과 세계 각국의 JF의 문화사업 및 일본국제만화상 실시, 세계의 유형·무형 문화유산 보존 노력, 일본 문화 및 자

55. 김태환. 2019. “대미 정책공공외교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주요 국가 사례 비교를 통한 함의” 정책연구시리즈 2019-07.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56. 外務省. “外交青書2023”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23/pdf/index.html> (검색일: 2023.12.10).

연유산의 '세계유산일람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추진 등을 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문화를 매개체로 한 일본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은 과거 일본의 부정적 이미지로부터의 탈피와도 연계된다.

(3) 친일파(親日派) 및 지일파(知日派) 육성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 확충

일본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일본에 대한 친근감을 갖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타국과의 우호관계 증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에 일본에서는 인적교류 및 지적 교류, 일본어 보급, '대일이해촉진교류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교류, 세계 주요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의 일본연구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팬하우스(Japan House), 해외미디어, 인터넷을 통한 정보 발신 등을 실시한다.

2) 일본 공공외교의 시행주체 및 주요기관: 외무성과 국제교류기금

일본의 공공외교는 대외홍보와 국제문화교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시행하는 주요 정부기관으로 외무성과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JF) 등이 있다.

(1) 외무성

외무성은 공공외교의 주요 업무 담당자로 외무보도관과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을 두고 있다. 주요 조직은 다음 [표 3-3]와 같다.

외무보도관 및 홍보문화조직에서는 국내외 여러 주체와 협력하면서 외국의 일본에 대한 이해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한 대응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련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기획 및 입안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외에의 홍보, 보도 기관에의 정보 발신, 문화교류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국내외의 보도 관계 기관에 대해서 대신, 부대신, 외무보도관 등에 의한 정례 기자회견 실시, 홈페이지 및 각종 외국어 홍보 자료에 의한 정보 발신, 전문가의 해외 파견, 외국의 전문가 및 보도 관계자의 초빙 등을 통한 국내외에의 적극적인 정보 발신을 실시한다. 또한 각종 일본 문화 소개 사업, 일본어 보급, 일본 연구 지원, 심포지엄 개최나 외국의 신진 리더 등의 초청, JET프로그램, 유학생 교류 관련 업무 등을 실시해, 문화교류 및 인적교류의 촉진이나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문화유산 보존 및 개발도상국에의 문화 관련 무상 자금 협력 등을 통해 문화면에 있어 국제 협력을 실시한다.

[표 3-3] 외무보도관·홍보문화조직 관련 부서 및 주요 업무내용(2023.7.21 기준)

외 무 보 도 관	홍보문화외교전략과	국내외에의 홍보, 보도 관계자에게 정보 발신, 문화의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 교류를 통한 대일 이해의 증진에 관한 기본 방침의 기획, 책정 및 실시
	국내홍보실	일본의 외교정책 등에 대한 국내 홍보
	전략적대외발신거점실	재팬하우스의 운영에 관한 업무
	IT홍보실	외무성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을 통한 일본의 외교정책 등에 관한 정보 발신
	공청실	외교 정책이나 외무성의 업무에 관한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청취활동
	보도과	국내 보도관계자에게 정보 발신
	국제보도관실	일본의 외교정책 및 일본의 실상 등에 대한 외국 보도 관계자에게 정보 발신
국 제 문 화 교 류 실 의 관	홍보문화외교전략과	국내외에 대한 홍보, 보도관계자에게 정보 발신, 문화 분야에 있어서 국제 교류에 의한 대일 이해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의 기획, 책정 및 실시
	문화교류·해외홍보과	문화교류에 관한 외교 정책, 국제교류기금과 제휴에 기반한 해외에서의 일본어 보급 사업, 일본 사정·외교 정책에 대한 해외 홍보
	국제문화협력실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기관), 유엔대학에 관한 외교정책
	인물교류실	인물교류사업 촉진(국비유학생, JET 프로그램, 스포츠 교류 등)
	대일이해촉진교류실	대일 이해 촉진 교류 프로그램 추진

※ 출처: 外務省, “外務報道官” <https://www.mofa.go.jp/mofaj/annai/honsho/sosiki/gaimu.html> 일부 발췌 및 필자 번역 (검색일: 2023.9.1.).

한편, 외무성의 해외 홍보 업무 정책을 현지에서 전개하는 일본의 재외공관은 현재 전 세계 273개이다(2023년 1월 기준).⁵⁷ 각 공관에서는 공보문화부, 공보문화반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보 및 문화교류가 이루어진다. 공보분야에 대해서는 외국 언론이나 일본언론에 대한 대응 외에도 외무성이나 국제교류기금의 강사파견 계획안 등을 통해 파견된 일본의 전문가를 맞이하는 각종 강연회나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의 개최 등

57. 총 273개 재외공관 중, 대사관 195개(실관 154개, 겸관 41개), 총영사관 67개(실관 67개), 정부대표부 11개(실관 10개, 겸관 1개)이며, 그 외 영사사무소 등이 20개 설치되어 있다(2023년 1월 기준). - 外務省, “在外公館設置状況”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047796.pdf> (검색일: 2023.9.25).

을 실시 및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재외공관이 일본 정부의 시책이나 일본 문화 등의 다양한 정보를 현지의 언어로 소개하는 독자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어 외무성 홈페이지나 일본의 일반 사정을 해외에 소개하는 Web Japan 홈페이지와 함께 대일 이해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⁵⁸

(2) 일본국제교류기금⁵⁹

독립행정법인 JF는 일본의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유일한 전문 기관이다. 1972년 일본 문화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해 외무성 소관의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2003년 10월 1일 독립행정법인으로 바뀌었다.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법에 의하면, JF는 일본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이해를 돕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며, 문화 및 기타 분야에 있어 세계에 공헌하고, 더 나은 국제환경 정비, 조화로운 대외관계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운용은 정부 출자금의 운용수입 및 매년 정부 교부금 및 민간 기부금으로 이루어진다.

2023년 9월 현재, JF⁶⁰는 25개국, 26개의 해외 사무소와 국내 부속 기관 및 지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재외 공관, 일본어 교육기관이나 문화교류 기관 등과 긴밀히 제휴하며 활동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 국내에는 도쿄 본부, 교토지부, 일본어국제센터(사이타마), 간사이국제센터(오사카)가 있다. 해외 거점으로 아시아·대양주 지역에는 한국(서울), 중국(북경),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캄보디아(프놈펜), 태국(방콕), 필리핀(마닐라), 베트남(하노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미얀마(양곤), 라오스(비엔티안), 인도(뉴델리), 호주(시드니) 등 12개국 12개 거점, 미주 지역에는 캐나다(토론토), 미국(뉴욕, LA), 멕시코(멕시코시티), 브라질(상파울루), 페루(리마) 등 5개국 6개 거점,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탈리아(로마), 독일(뮌헨), 프랑스(파리), 영국(런던), 스페인(마드리드), 헝가리(부다페스트), 러시아(모스크바), 이집트(카이로) 등 8개국 8개 거점이 있다. 거점 지역을 갖는 25개국 중 미국만 유일하게 뉴욕⁶¹과 LA⁶² 2개 거점을 가지고 있다.

58. 김기정·최종건. 2012.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계 연구」, 외교통상부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p.27.

59. 國際交流基金, <https://www.jpf.go.jp/>

60. 國際交流基金 “3つの交流事業” <https://www.jpf.go.jp/j/project/index.html>

61. Japan Foundation New York Center, <https://ny.jpf.go.jp/>

[그림 3-1] 국제교류기금 국내외 거점



출처: JF. “世界の拠点紹介” <https://www.jpff.go.jp/j/world/index.html>

국제교류기금법에 따르면, JF의 업무 범위는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둔 인물파견 및 초청, △해외의 일본연구에 대한 원조, 알선, 일본어 보급,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실시, 원조, 알선 및 참가, △일본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자료 및 기타 국제문화교류에 필요한 자료 작성, 수집, 교환 및 배포, △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정비에 대한 원조, 물품 구입 원조 및 물품 증여, △국제문화교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JF에서 실시하는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교류, 일본어 교육, 일본연구·국제대화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 **문화예술교류(문화)**: 일본의 문화를 미술이나 음악, 연극, 영화부터 패션, 디자인까지 폭 넓게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어를 초월한 공감의 장을 만들고, 함께 창조하는 기쁨을 나누며,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를 깊게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화, 조각, 공예, 건축 등 조형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 무대예술, 일본문학번역, 일본작가의 해외파견, 일본문학번역가 및 편집자 등의 해외초청, 심포지엄 및 좌담회 등 출판,

일본 TV 프로그램의 해외 방영, 일본 영화제 개최, 국제 영화제에서의 일본 영화 상영 서포트 등 영상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일본어교육(언어):**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국의 학습 환경 정비, 각국의 정부 및 교육 기관 등과의 제휴를 통한 현지 지원 등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해외 일본어 교사 대상 연수, 해외 일본어 교육기관 활동 지원 등 일본어교육, 다양한 일본어 학습 교재, 해외 일본어 학습자 방일 연수, 일본어 강좌 등 일본어 학습, 일본국제교류기금 일본어기초테스트(JFT-Basic), 일본어능력시험(JLPT), 세계 일본어교육현황 조사, 일본어 교육기관 검색 등 일본어교육조사 등이 그 예이다.
- **일본연구·지적교류(대화):** 상호 간 지식교류를 심화하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글로벌 과제의 해결을 도모하며,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해외의 일본 연구자 및 일본연구기관 지원, 초국경적 과제에 대한 공동프로젝트 및 지식인들 간 대화를 위한 심포지엄 및 세미나, 지식인 초청, 지적교류회의구성 등 지적교류지원을 통해 상호이해교류와 다양한 수준에서의 대화 촉진, 인재 양성,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한편, 국제교류기금은 2001년 중앙성청 재편을 통해 문화청과 기능이 명확하게 분담되었으며, 외무성 및 국제교류기금의 주요 사업은 외교에 준하는 일로 한정되었다.⁶³

4. 일본의 공공외교: 유형과 주요활동⁶⁴

일본의 공공외교 활동은 주로 △해외홍보, △문화교류, △인적교류,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유네스코, 유엔대학 등), △문화에 관한 무상자금협력, △대일이해촉진교류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된다([표 3-4] 참조).

63. 안세영. 2010. 「일본 공공외교의 특징에 관한 연구 -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2.

64. 外務省. “広報文化外交”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index.html>

[표 3-4] 일본 공공외교의 유형 및 주요활동

구분	주요활동
해외홍보	Japan House, 일본 브랜드 발신 사업, 해외에서의 대일여론조사, 인바운드 관광 촉진, Web Japan, NHK world
문화교류	대사관 및 총영사관 활동, 일본어교육, 일본연구 및 지적 교류, 대중문화외교, 일본 브랜드 발신 사업, 주요기념사업, 국제교류기금 등
인적교류	각국 및 지역의 정부 관계자,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과의 교류, 유학생 및 청소년 교류, 스포츠 교류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유네스코, 유엔대학 등)	문화, 교육, 학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네스코 대학 활동에 협력
문화에 관한 무상자금협력	일반문화 무상자금 협력, 풀뿌리문화 무상자금 협력
대일이해촉진프로그램	JENESYS(아시아대양주), KAKEHASHI Project(북미), MIRAI 및 러일청년교류 사업(유럽), Juntos!!(중남미) 사업 등
기타	홍보문화외교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활동 등

출처: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참조하여 필자 작성

1) 해외홍보⁶⁵

해외홍보 활동은 해외에서의 일본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고, 우호적인 대일 이미지와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일본의 외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발신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사 및 총영사를 비롯한 재외 공관 직원에 의한 강연 활동, 현지 미디어 기고 및 출연, 뉴스레터 등 발행, 각종 이벤트 개최, 외국의 오피니언 리더 등 일본 초청, 국제 여론 형성에 영향력 있는 심포지엄 및 강연회에 자국의 전문가 파견, 각 언어별 인쇄물 및 시청각 자료 제공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해외에서의 일본에 대한 이미지나 관심의 대상 등을 조사 및 분석 등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해외홍보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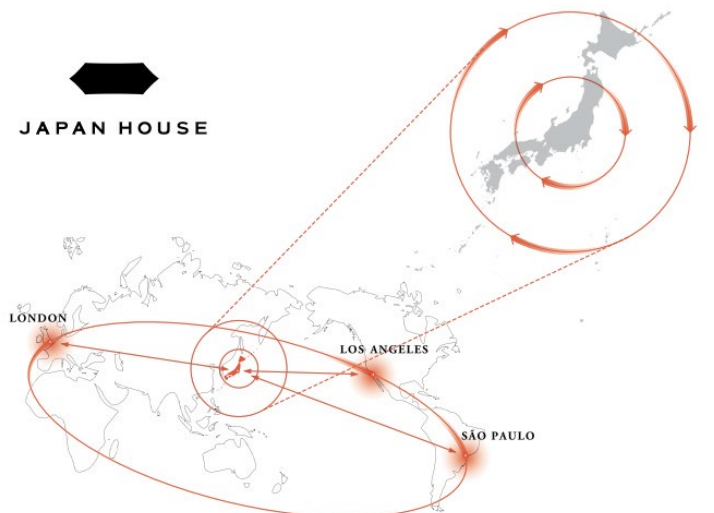
최근에는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觀光立国推進基本計画, 2023.3.31 책정)”과 “신시대 인바운드 확대 액션플랜(新時代のインバウンド拡大アクションプラン, 2023.5.30 책정)” 아래

65. 外務省. “海外広報”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pr/index.html> (검색일: 2023.10.2).

재외공관 등을 활용해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다양한 형태로 발신하는 동시에 외국인 여행자의 방일촉진이나 국제회의 유치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에 앞서 2016년 3월에는 “내일의 일본을 지원하는 관광 비전(明日の日本を支える観光ビジョン)”을 기치로, 일본의 매력을 발신하여 “세계가 방문하고 싶어지는 일본”을 목표로 외국인 여행자의 일본 방문을 촉진하고, 국제회의 유치 지원 등을 추진하여 왔다.

(1) 재팬하우스(Japan House)⁶⁶: 일본의 전략적인 대외 발신을 위해 상파울루, LA, 런던 등 세계 3대 대륙의 주요 도시에 설치한 대외 발신 거점이다. 폭넓은 층을 대상으로 일본의 다양한 매력, 정책, 대처 등을 전하고 친일파 및 지일파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팬하우스는 첫째, 일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레스토랑, 카페, 상점 등 상업 공간을 겸비해 민간 분야의 활력과 지자체의 매력을 적극 활용한 ‘올 재팬’을 구현하며, 셋째,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연구 및 홍보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림 3-2] Japan House



출처: Japan House <https://www.japanhouse.jp/>

66. ジャパン・ハウス. <https://www.japanhouse.jp/>; 外務省. “ジャパン・ハウス” https://www.mofa.go.jp/mofaj/p_pd/pds/page24_000421.html (검색일: 2023.10.2).

- (2) **일본브랜드발신사업⁶⁷**: 일본의 강점, 가치관, 전통, 현대일본을 형성하는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매력 발신을 통해 일본 전체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해외에 파견해 강연회, 워크숍, 시연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청중과 가치관이나 체험을 공유해 일본의 매력에 대한 관심이나 공감,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한다. 또한 일본의 장점에 공감하는 외국인에 의한 재발신을 통한 파급효과, 장기적으로는 일본상품의 해외 소비 및 유통 확대를 통해 해외 비즈니스 전개, 가치관 공유를 통한 국제 교류, 방일 관광객 증가 등도 목표로 하고 있다.
- (3) **해외에서의 대일여론조사⁶⁸**: 해외에서의 일본에 대한 이미지 및 일본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 등을 관측하여 외교정책 입안 시 참고한다. 미국, 캐나다, 유럽, ASEAN, 호주, 인도,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 (4) **‘인바운드 관광촉진’⁶⁹**: 일본은 관광입국(觀光立国)의 실현을 위해 2016년에 “내일의 일본을 지원하는 관광 비전(明日の日本を支える観光ビジョン)”을 발표, 전 세계 재외공관을 활용하는 등 정부가 중심이 되어 일본의 매력을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여 일본에 대한 우호적 인식 확대 및 일본 방문 유치로 연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觀光立国推進基本計画, 2023.3.31 각의결정)”에 기초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소비액 확대, 지방관광객 촉진의 세 가지를 키워드로 지속 가능한 관광지역 만들기, 인바운드 회복, 국내교류 확대의 세 가지 전략에 임하고 있다.
- (5) 기타: 이 외에도 역사, 문화, 관광지, 음식 등 일본의 제반사항을 소개하는 ‘Web Japan’⁷⁰, NHK 국제방송⁷¹ 등이 해외홍보를 위한 주요 역할을 한다.

2) 문화교류⁷²

문화교류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국가 간 신뢰와 우호 관계

67. 外務省. “日本ブランド発信事業” https://www.mofa.go.jp/mofaj/p_pd/pds/page22_001100.html

68. 外務省. “海外における対日世論調査”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pr/yoron.html>

69. 外務省. “インバウンド観光促進”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pr/visitjapan/index.html>

70. Web-Japan. <https://web-japan.org/>

71. NHK World Japan. <https://www3.nhk.or.jp/nhkworld/>

를 형성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세계에 일본을 알리고 이에 따라 일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자국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세계인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대사관 및 총영사관의 활동, 일본어교육, 일본연구 및 지적 교류, 대중문화외교(일본국제만화상 포함), 일본 브랜드 발신 사업, 주요기념사업, 미일문화교류교류회의(The Japan-United States Conference on Cultural and Educational Interchange, CULCON)⁷³,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 등의 활동 등이 이에 포함된다.

3) 인적교류⁷⁴

일본은 문화교류는 인적교류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각국 및 지역의 정부 관계자,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과의 교류, 유학생 및 청년 교류, 스포츠 교류 등의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에 대한 이해 및 일본과의 우호관계 증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각국 정상, 장관 등 고위급 초청, 실무자 및 언론관계자, 국제여론에 영향력이 높은 각계 오피니언 리더, 장래 지도자적 위치에 오를 것으로 유력시되는 사람들을 초청한다. 또한 여러 나라와의 우호 친선 관계 형성 및 대일 이해 촉진, 일본 고등 교육 기관의 국제화, 지역 및 기업의 활성화 및 개발도상국의 장래를 짚어줄 인재 육성을 위해 인적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미일 풀브라이트 교류계획 70주년 기념식(Japan-U.S. Fulbright Program 70th Anniversary Ceremony, 2019.7.5)>, <미일인호 펠로우십 신설 기념행사(The Launch Event for the Quad Fellowship, 2021.5.24)>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또한 유학생 교류와 청년교류의 중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다. 특히, 유학생 교류는 일본과 외국과의 우호 친선과 대일 이해 촉진, 일본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지자체 및 기업의

72. 外務省. “文化の交流”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koryu/index.html>

73. 外務省. “日米文化教育交流会議(カルコン)”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koryu/page22_003224.html

74. 外務省. “人の交流”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hito/index.html>

활성화, 미래 인재 육성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83년에는 ‘외국인 유학생 10만인 계획’을 발표하였고, 2008년에는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0만 명으로 늘리는 ‘2020년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의 젊은이들에게 유학 정보 제공, 국비 유학생 모집 선발, 모국으로 귀국한 졸업생들과의 관계 유지 강화 및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젊은 세대가 일본 청소년들과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하거나, 실제로 일본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청소년 교류’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제 교류의 실시 및 어학 교육 향상을 위해 외국 청년을 특별직의 지방 공무원으로서 임용해 실시하는 JET 프로그램에⁷⁵ 협력하여 재외 공관에 의한 JET 참가자의 모집·홍보, 전형 등의 업무 및 이전 JET 참가자들의 모임(JET Alumni Association, JETAA) 지원, 귀국 후의 참가자 팔로우업 등 청년세대 간 교류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ODA 대상국의 외교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본어 연수를 실시한다. 이는 외무성 등 정부기관에서 장래 정책 입안에 종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젊은 외교관 및 공무원을 일본에 초빙하여 약 8개월간 일본어와 일본문화 등의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본의 사정에 통하면서도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친일파 및 지일파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교류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스포츠는 국경·언어·민족의 차이를 초월한 국제 교류 및 상호 이해의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유도·검도·공수도 등 일본 전통 스포츠를 비롯한 스포츠 분야에서의 국제 교류를 통한 대일 이해 촉진과 친일파 육성을 도모한다.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등 대규모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 지원 및 국제 대회 계기 교류 증진 등이 그 사례이다.

4) 국제기관을 통한 협력(유네스코, 유엔대학)⁷⁶

일본은 유네스코 및 유엔대학을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네스코’를 통해서 1951년 유엔 가입 후,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분야 등 글로벌 과제에 대처하기 위

75. JET Programme. <https://jetprogramme.org/ja/>

76. 外務省. “国際機関を通じた協力”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kyoryoku/index.html>

한 국제협력 및 교류를 통한 국제평화 및 인류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엔은 ‘세계유산’, 전통음악·무용·연극·공예기술과 같은 ‘무형문화유산’,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존과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세계의 기억’ 사업, ‘유네스코 출연금’을 통해 교육·자연/인문/사회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정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또한 일본은 유엔대학을 통해서도 협력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대학은 일본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의 결과로 유엔 결의(1972년, 제27차 총회 결의 2951)에 근거해 설립된 유엔 기관으로 일본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75년에 활동을 시작한 유엔대학은 인류의 존속, 발전 및 복지, 긴급한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 이로부터 습득한 지식의 확산 및 개발도상국의 능력 개발, 조사·연구에 근거하는 정책 제언 등을 목적으로 하며, 평화, 거버넌스, 글로벌 개발 문제, 환경 및 지구 규모의 문제 등 국제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협력의 장을 제공하며, 인재 육성 및 지식 보급을 위한 활동 등을 통해 유엔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 문화에 관한 무상자금협력⁷⁷⁾

문화에 관한 무상 자금 협력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일본과의 상호 이해 및 우호 친선을 깊게 하기 위해 ODA의 일환으로서 1975년에 창설되었다. 문화에 관한 무상 자금협력은 정신적인 풍요를 가져오는 문화, 스포츠 분야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간 중심의 개발을 통해 “질 높은 성장”과 이를 통한 빈곤 삭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문화·고등 교육 진흥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구입이나 시설의 정비를 지원한다. 또한 문화 및 스포츠 분야에서 일본의 소프트 파워 등 일본의 강점을 살린 지원을 통해 일본에 대한 친밀감 및 대일 이해 촉진 효과를 기대한다. 창설 당시인 1975년부터 2022년까지 1,450건, 총 706.9억 엔의 협력을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북마케도니아의 국립오페라 발레를 위한 악기·음향·조명기자재 정비계획,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시에는 ‘Sport for Tomorrow(SFT) 프로그램’ 등이 있다.

한편, ‘폴뿌리문화 무상자금협력’은 개발도상국의 지방공공단체, NGO 등 비영리단체를 피공여단체로 지정함으로써 보다 세밀한 원조 실시를 목표로 한다. 2000년에 도입된 이래

77. 外務省. “文化に関する無償資金協力”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musho/index.html>

2022년도까지 100개국 이상에 대해 합계 559건, 약 40억 엔에 이르는 원조를 실시해 왔다. ‘플뿌리문화 무상자금 협력’으로는 우루과이의 ‘우루과이 공화국 대학 정보소통학부 시청각 미디어 기자재 정비 계획’, 기니의 ‘코나크리시 가라테 도장 확장·정비 계획’, 아제르바이잔의 ‘아제르바이잔 언어 대학 일본어 연구 센터 기자재 정비 계획’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6) 대일이해촉진교류프로그램⁷⁸

대일이해촉진교류프로그램은, 일본과 아시아 대양주, 북미, 유럽, 중남미의 각국·지역 간 대외 발신력을 가진 인재를 초빙, 파견, 교류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및 외교 정책 등에 관한 대일 이해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외교 자세나 매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신하고, 친일파·지일파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초청 혹은 파견된 사람들이 스스로 일본의 매력을 발신하게 하여 대외 발신력을 높이고, 외교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시아·대양주 지역의 JENESYS(Japan-East Asia Network of Exchange for Students and Youths)⁷⁹, 북미지역의 KAKEHASHI Project⁸⁰, 유럽 지역의 MIRAI⁸¹와 일러청년교류사업, 중남미 지역의 Juntos!!⁸², 중일 21세기교류사업⁸³ 등이 있다.

7) 기타

그 외 홍보문화외교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및 정부 관계자의 활동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외무성 부대신의 국제교류기금 지구시민상 시상식(온라인) 참석’, ‘미스 인터내셔널 뷰티

78. 外務省. “対日理解促進交流プログラム” https://www.mofa.go.jp/mofaj/p_pd/ep/page23_001476.html

79. 外務省. “アジア大洋州地域との交流 JENESYS” https://www.mofa.go.jp/mofaj/a_o/rp/page24_001716.html

80. 外務省. “北米地域との交流 カケハシプロジェクト” https://www.mofa.go.jp/mofaj/area/page25_000243.html

81. 外務省. “欧州地域との交流「MIRAI」” https://www.mofa.go.jp/mofaj/erp/ep/page24_000530.html

82. 外務省. “中南米地域との交流 Juntos!! 中南米対日理解促進交流” https://www.mofa.go.jp/mofaj/la_c/m_ca_c/page22_002530.html

83. 外務省. “日中21世紀交流事業の概要”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hito/sei/jc21/jc21_gai.html

페이전트' 관계자의 외무대신 예방, '외무대신 정무관의 NHK 일본상 교육콘텐츠 국제콩쿠르 시상식 참석', '요미우리 국제협력상 시상식 외무부대신 참석', '해외에서의 일본어 보급 촉진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홍보문화외교에 제도적 기본 방향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등이 그 사례이다.

5. 일본의 공공외교: 특징과 함의

일본의 공공외교는 전후질서 수립과 경제발전, 탈냉전 시대의 도래, 국내외적 변화 속에서 발전 및 진화해왔다. 그리고 현재는 일본의 정책, 대응 및 입장 발신, 일본의 다양한 매력 발신, 친일파 및 지일파 육성 등 3개의 축에 기반해 전략적인 대외 발신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의 공공외교를 '홍보문화외교(広報文化外交)', '전략적 대외 발신(戦略的な対外発信)', '퍼블릭디플로머시(パブリック・ディプロマシー)'로 표현하기도 한다.⁸⁴ 한편, 일본 공공외교의 전개양상과 추진목표, 주요활동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공공외교는 전후 부정적인 국가이미지 쇠퇴 과정 속에서 진화 및 발전되었다. 모든 국가의 외교정책의 제1목표는 국익의 극대화이지만, 그 내용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공공외교 또한 외교의 일환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미국 대외정책의 주요 목표가 소련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었다면, 일본은 부정적인 이미지 쇠퇴와 경제적 이익 확보가 우선순위에 있었다.⁸⁵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 후, 국제사회로의 편입이 시급했던 일본은 '전범국', '패전국', '군국주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협력선도국가', '경제발전국가'라는 이미지를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경

84. 2020년 6월 23일 제201회 국회질의회에서, "모테기 외무대신이 외교연설에서 언급한 '퍼블릭 디플로머시'와 당해 외교청서에 제시된 '전략적 대외 발신'이 같은 의미인지"를 묻는 마루야마 호타카(丸山穂高) 중의원의 질문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는 "퍼블릭 디플로머시는 매우 큰 개념이기 때문에 일률화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衆議院. "質問答弁経過情報"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201251.htm (검색일: 2023.9.23). 하지만 외교청서, 외무성 홈페이지, 외교연설 등 다양한 공식적 자리에서 '퍼블릭 디플로머시'와 '전략적 대외 발신'은 혼용되고 있어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5. 황순택. 2020. 김병호 외. "일본의 공공외교" 「공공외교의 이해」, 명인문화사. pp.163-190.

제력에 기반한 외교가 갖는 한계를 목도한 이후, 경제적 원조를 넘어 문화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통해 자국의 이미지 형성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더욱이 전후 ‘요시다 노선(吉田路線, 吉田ドクトリン)⁸⁶’을 채택한 일본이 경제 회복과 부흥에 집중하면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에 대한 기대와 변화한 일본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기울여야 한다는 일본 내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국내외적 요구에 따라 일본은 기존의 ‘패전국’, ‘전범국’, ‘군국주의 국가’의 이미지 탈피에서 ‘경제협력선도국가’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일본’, ‘매력국가 일본’, ‘평화국가 일본’을 내세우기 시작하였다.

2005년 일본 정부가 채택한 『일본 21세기 비전(日本21世紀ビジョン)』에도 이러한 인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지 일본이 목표로 해야 할 3개의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개방된 문화창조국가’, ‘건강수명 80세’, ‘풍요로운 공기업과 작은 정부’가 이에 해당한다.⁸⁷ 이 중, ‘문화창조국가’가 교류와 국제공헌 등을 통해 경제·사회의 활력을 높여 매력과 존재감을 갖는 국가를 의미한다. 전후 일본의 공공외교가 국제사회의 편입을 위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에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을 규정하면서 진화 및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공공외교는 ‘일방향 원조외교’에서 ‘양방향 협력외교’로 변화하였다.

전후 일본 공공외교의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70년대 동남아에서 높아진 반일 감정과 반일 시위, 그리고 1990년대 걸프전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수표책 외교(checkbook diplomacy)’라는 비판을 받은 이후였다. 고도의 경제성장 속 경제력을 기반으로 ‘경제협력선도국가’, ‘평화국가’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던 일본이 경제만으로는 공공외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이에 일본의 공공외교는 문화를 매개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일본의 입장과 정책을 알리며 발신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문화교류를 통한 공공외교가 상대국과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친근감과 이해를 높여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

86. 안보 문제는 미국에 의존하는 한편, 군사적 예산은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출, 경제발전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으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수상이 언급한 일본의 외교노선이다.

87. 内閣府. “ここがポイント『日本21世紀ビジョン』 - 新しい躍動の時代”(2005.5) https://www.esri.cao.go.jp/jp/esri/prj/sbubble/data_history/7/housin19_1.pdf (검색일: 2023.12.30).

야에서의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일본외교의 영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1980년대 이후 일본 공공외교의 기반이 되었고,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에도 이어졌다. 한 예로, 2004년에 발족한 ‘문화외교 추진에 관한 간담회(文化外交の推進に関する懇談会)’가 2005년 7월 발표한 「문화교류의 평화국가」 일본의 창조를(「文化交流の平和国家」- 日本の創造を)⁸⁸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서는 “타국 국민들과 국제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문화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추진하여 친밀감을 조성하고, 외국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 세계 문화의 다양성 유지와 발전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일본 외교의 외연 확장에 필수적이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버블경제 붕괴 후 장기불황 속에서 공공외교의 수단이었던 일본의 경제력과 경제성장은 역으로 공공외교의 목적으로 변화하였다. 일본은 변화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자국의 높은 문화콘텐츠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공공외교는 기존까지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경제원조 ODA 사업과 문화보급을 실시하던 ‘원조형 일방향 외교’에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협력형 양방향 외교’로 진화되었다. 2006년 「외교청서」에 명시된 해외홍보와 문화교류의 목표에도 이와 같은 인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

“海外広報と文化交流は、相手国国民に対して日本の外交政策や諸事情、文化・思想の魅力を広く発信することにより、日本に対する理解と親近感を高め、外交交渉を円滑に行うための環境を整備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 (中略) … 諸外国国民の対日イメージを向上させ、親近感を獲得することには、海外における邦人の安全性の向上だけでなく、日本を訪れる外国人観光客の増加や、日本製品の販売促進といった経済的な効果も期待できる。”

88. 文化外交の推進に関する懇談. 「文化交流の平和国家」日本の創造を(2005.7) https://dl.ndl.go.jp/view/pr_epareDownload?itemId=info%3AndIjp%2Fpid%2F3531298&contentNo=1 (검색일: 2023.12.30).

“해외홍보와 문화교류는 상대국 국민에게 일본의 외교 정책이나 여러 사정, 문화·사상의 매력을 넓게 발신하는 것으로, 일본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높여 외교 교섭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중략) … 다른 나라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켜 친근감을 획득하는 것에는, 해외에서 일본인의 안전성 향상뿐만 아니라, 방일 외국인 관광객 증가, 일본 제품 판매 촉진 등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006년 「외교청서」⁸⁹ 중, 일부 발췌(필자 번역)

즉, 과거 일본의 공공외교가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상대국에게 일본의 매력을 발신하며, 친근감과 우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면, 이제는 관광산업, 콘텐츠산업 등까지 확대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경제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변화한 것이다.

셋째, ‘친일파’와 ‘지일파’는 일본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이자,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2023 외교청서」에 명시되어 있듯, 현재 일본의 전략적 대외 발신 추진을 위한 세 가지 축 중 하나는 ‘친일파 및 지일파 양성’이다. 전후 일본의 공공외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점이기도 하다. 타국으로부터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 일본에 대한 친근감과 높은 이해를 갖는 사람들을 양산 및 확산한다는 것은, 이들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해 알린다는 의미이자, 곧 이들을 ‘매개체’로 일본을 알린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즉, 타국의 전문가·오피니언리더 등 지일파 등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친근감과 이해도를 높이고, 그들을 통해 일본과 해당 국가를 잇는 가교역할을 기대하고, 일본에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2007년 6월 20일 외무성 해외교류심의회가 발표한 「일본의 발신력 강화를 위한 5가지 제언」에 보다 상세히 드러나 있다.⁹⁰ 보고서에서는 각국이 자국의 매력을 호소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소프트파워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일본 또한 문화

89. 外務省. 「外交青書」(平成18年版)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06/html/framefiles/honbun.html> (검색일: 2023.12.30).

와 사회의 매력을 통해 상대의 공감을 얻어 정책이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중국의 급성장에 따라 미국 및 주요국에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본은 이에 대해 효과적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한편, 보고서는 일반시민과 지식인층의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다르다는 점과 대중문화의 인기는 일시적이라는 점을 들어 대중과 지식인들의 관심을 일본문화, 일본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갈 것을 제언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 일본문화봉사제도 신설, ② 일본어교육거점 100개 이상 설치, ③ IT 및 미디어를 통한 정책 메시지 외국어 발신 강화, ④ 지적교류 및 지일파 육성, ⑤ 젊은 지도자에 대한 대일 이해촉진 프로그램 도입 등 다섯 가지가 제시되었다.

또한, 다음 해인 2008년 2월, 외무성 해외교류심의회가 발표한 ‘일본의 발신력 강화를 위한 시책과 체제 - 일본을 이해하는 사람과 팬을 늘리기 위해(「日本の発信力強化のための施策と体制-「日本」の理解者とファンを増やすために)」’에서는 지식인층의 논조는 각국의 정책결정에 직결되기 쉬운 만큼 조속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재를 늘리고, 미국 등 주요국에서 이들의 정책에 대한 논의와 검토의 장과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⁹¹ 일본은 친일파와 지일파의 확대가 일본의 외교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 보았고,⁹²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지적교류, 연구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90. 海外交流審議会. 「日本の発信力強化のための 5つの提言」(2007.6.20) https://www.mofa.go.jp/mofaj/annai/shingikai/koryu/pdfs/h18_teigen.pdf (검색일: 2023.12.30).

91. 海外交流審議会. 「我が国の発信力強化のための施策と体制 - 「日本」の理解者とファンを増やすために」(2008.2) https://www.mofa.go.jp/mofaj/annai/shingikai/koryu/pdfs/toshin_ts.pdf (검색일: 2023.12.30)

92. 文化外交の推進に関する懇談. 「文化交流の平和国家」日本の創造を」(2005.7) <https://dl.ndl.go.jp/view/prepareDownload?itemId=info%3Andljp%2Fpid%2F3531298&contentNo=1> (검색일: 2023.12.30).

IV. 일본의 대한민국 공공외교: “일본의 공공외교는 왜 한국에서 성공하지 못했을까?”

공공외교의 목적은 자국에 대한 타국의 관심, 이해, 신뢰, 친근감을 형성시켜 외교정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해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기반할 때, 일본의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목적 또한 한국의 일본에 대한 관심, 이해, 신뢰, 친근감을 형성시켜 일본의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원활한 실시와 한일관계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는 점에서 일본의 대한민국 공공외교가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공공외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최근의 공공외교 주체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되고, 그 활동 영역이 다양해진 만큼 한 나라의 공공외교 활동을 전부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모든 활동이 공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추진되지만, 네트워크 구축사업, 인적교류, 문화교류 등 다른 이름으로 실시되는 사업들도 적지 않고, 정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관 부처나 같은 부처 내에서도 주관 부서가 다른 사업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계로 한 나라의 공공외교 활동을 전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주요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 조사 및 분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인 외무성 및 재외공관, 일본국제교류기금 본부 및 서울사무소가 추진한 활동 중 예산 사용이 확인된 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일본의 대한민국 공공외교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각 부처가 소관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 상황과 자체 성과 및 점검 결과를 실시하여, 공표하는⁹³ <행정사업리뷰>(2010년⁹⁴~현재) 중, 외무성 자료를 근거로 한다.

93. 政府の行政改革. “行政事業レビュー”. <https://www.gyokaku.go.jp/review/review.html>;

94. ‘행정사업리뷰’는 2011년(平成 23년)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2013년(平成 25년) 자민당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서 제도적 변경이 있었다. 현행 ‘행정사업리뷰’는 2013년 이후에 제도를 따른다. 다만, 2010~2012년의 자료는 공식 자료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首相官邸. “行政事業レビューの実施等について” <https://www.kantei.go.jp/jp/singi/gyokakusuisin/dai2/siryou01.pdf>

1.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 주요 추진기관 및 활동

1) 외무성

외무성 내 한국에 대한 주요사업 및 공공외교 사업은 아시아대양주 지역외교 중 한국을 담당하는 아시아대양주국의 「북동아시아1과」와 홍보 및 문화교류 사업 등을 담당하는 외무보도관·홍보문화조직 내 「대일이해촉진교류실」, 「홍보문화외교전략과」, 「문화교류 해외홍보과」 등에서 이루어진다.

(1) 북동아시아1과 - 한일관계 관련 주요사업

일본 외무성에서⁹⁵ 공표한 한일관계 관련하여 예산이 지출된 사업들은, △한일관계 경비, △재사할린 한국인 지원 특별기금 출연금(1989~현재), △한일 학술문화 청소년교류 공동사업체 출연금(1989~현재), △한일 산업기술협력 공동사업체 출연금(1993~현재) 등이다. 이 사업들은 2023년에는(令和5年: 2023.4~2024.3) “한일관계 개선”, 2022년까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추진”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되었다. 이 중, △한일관계 경비로는 ① 정치 분야 대화 촉진(한일정책대화 등), ② 인적교류 확대(한일포럼, 한일시민교류 등), ③ 한일 간 과거사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한국인 유골 조사 및 반환, 유족 추모 순례, 한일 역사 공동 연구 등), ④ 한일 간의 여러 현안에 대한 대응(영토문제 등에 관한 특별조사 등)이 포함된다.⁹⁶

재사할린 한국인지원 사업은 특별기금 출연을 통해 1989년 일본 적십자사와 대한 적십자사 간에 설립된 ‘재사할린 한국인 지원 공동사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주 귀국 등의 지원 경비 및 재(在)사할린 한국인의 일시 귀국 및 영주 귀국자의 사할린 재방문, 재사할린 한국인 의료 상담 창구 개설, 요양원 외부 간호 서비스 지원비, 요양원의 시설 수리 지원을 실시하며, 향후 지원책 검토를 위해 협의한다. 재사할린 한국인의 고령화와 영주 귀국 등이 실현됨에 따라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다.

95. 外務省.” 行政事業レビュー”. https://www.mofa.go.jp/mofaj/annai/yosan_kessan/kanshi_kouritsuka/gyosei_review/index.html

96. 外務省.” 行政事業レビュー. 令和4年度実施事業及び令和5年度新規事業一覧. 0009. 日韓関係経費”. https://www.mofa.go.jp/mofaj/ms/ta/page23_004430.html#section1

한일 학술문화 청소년교류 공동사업은 한일 양국 간 학술·문화교류 및 청소년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 관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8년 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인적교류, 특히 청소년 교류 사업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그 후 두 차례에 걸친 한일 외무장관 정기 협의를 통해 1989년 5월 ‘한일 학술문화청소년교류공동사업체’가 설립되었고(일본 측 사무국: 한일문화교류기금, 한국 측 사무국: 국립국제교육원), 한일 양국 정부가 책정하는 한일 간 학술문화 지적 교류사업(한일 연구자 및 오피니언 리더가 상대국에서의 체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사업, 양국 지식인에 의한 학술·문화 관련 회의사업이 실시된다.

한일 산업기술협력 공동사업은 1992년 한일 정상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의 재단으로 구성된 한일 산업기술협력 공동사업체가 한일 간 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한일 비즈니스 교류 촉진사업(한일 신분야 연계 세미나), 산업·기술 교류사업(차세대 경영자 교류사업), 조사·홍보사업 등을 실시한다.

이외, 한일관계 관련 경비 중 **정치 분야 대화 촉진 사업**의 ‘한일정책대화’는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관계자 및 한일 양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1.5트랙 회의로, 관련 현안 및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회의이다.

인적교류 확대의 일환으로서 ‘한일포럼’은⁹⁷ 1993년 김영삼 대통령과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되어 민간 차원에서 양국 간 폭넓고 지속적인 대화를 촉진한다는 목적하에 1993년 12월 서울에서 첫 회의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해 오고 있다. 한일 간 수많은 민간대화 중에서 유일하게 양국 정상의 합의에 의해 시작되어 지속되고 있는 권위있는 회의체이다. 한일시민교류의 대표적인 예로 ‘한일축제한마당’은⁹⁸ 2005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우정의 해’ 주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매년 서울과 도쿄에서 개최되며, 한국과 일본 최대 규모의 민간교류 행사로 성장하여 문화교류, 시민 교류, 청소년 교류, 지방자치단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97.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일포럼”. <https://www.kf.or.kr/kf/na/ntt/selectDgtlDetailView.do?dgtlType=N&mi=1612&dgtlSn=16021&langTy=KOR> ; 日本国際センター. “日韓フォーラム”. <https://www.jcie.or.jp/japan/report/activity-report-22027/>

98. 한일축제한마당. <https://omatsuri.kr/>; 日韓交流おまつり. <https://www.nikkan-omatsuri.jp/history/>

한일 간 과거사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인 유골 조사 및 반환 사업’은 일본 내 한반도 출신의 유골을 찾아 반환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중단되었다가 한일 정부가 반환을 위한 협의를 재개하였다. ‘유족 추모 순례 사업’은 일본군으로 소속되어 전쟁터에서 숨진 한반도 출신자의 유족이 전쟁터로 순례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 진행하나,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되었으나, 양측 간 협의에 의해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한일역사공동연구’⁹⁹ 2001년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한일정상회의에서 합의로 시작되었다. 한일 관계사에 대해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한일 양측의 학자와 전문가에 의해 구성되었고, 한일역사공동연구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제1기는 2002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제2기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활동하였고, 각각 보고서를 발표하며(1기: 2005년 6월, 2기: 2010년 3월) 활동을 종료하였다. 이외 ‘한일역사가회의’¹⁰⁰ ‘한일역사연구추진에 관한 공동위원회(1997~1999년)’의 제언으로 설치되어 한일 양국의 역사연구자가 상호 이해를 깊게 하고 교류와 협력의 고리를 펼치는 교류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1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99. 外務省. “日韓歴史共同研究” <https://www.mofa.go.jp/mofaj/area/korea/rekishi/index.html>; 日韓文化交流基金. “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会” <https://www.jkcf.or.jp/projects/2010/17283/>

100. 日韓文化交流基金. “日韓歴史家会議”. <https://www.jkcf.or.jp/projects/2018/17288/>

[표 4-1] <외무성-북동아시아과> 한일관계 관련 주요사업 및 집행액(예산)(2010~2023)

(단위: 백만 엔)

	2010 (平成 22年)	2011 (平成 23年)	2012 (平成 24年)	2013 (平成 25年)	2014 (平成 26年)	2015 (平成 27年)	2016 (平成 28年)
한일관계	31 (59)	30 (57)	29 (60)	21 (57)	37 (57)	37 (59)	38 (46)
- 한일정책대화	2	2	4	4	4	3	3
- 한일포럼	11	6	10	5	9	5	5.8
- 한일시민교류촉진	1	1	1	1.1	1.4	1.4	1.3
- 한국인유골조사· 반환사업	2	연기	연기	연기	연기	연기	연기
- 한국인유족추모 순례지원사업	3	7	6	2.4	5.2	미실행	2.5
- 한일역사공동연구 (역사가회의)	3	9	4	3	4	4	3.8
- 영토문제특별조사	9	5	4	3	11	8	5
- 한일외교관교류	연기	연기	연기	0.3	연기	0.3	0.5
- 한일EPA	3	3	3	2.4	1.9	2	1.5
-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사업	-	-	-	-	-	1.7	-
재사할린 한국인지원 -재사할린한국인지원 공동사업체	186 (186)	120 (120)	118 (118)	0 (112)	102 (102)	99 (99)	102 (102)
한일학술문화청소년교류 -일한문화교류기금	295 (295)	295 (295)	251 (251)	224 (224)	144 (144)	132 (132)	130 (130)
한일산업기술협력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40 (40)	33 (33)	28 (28)	25 (25)	21 (21)	21 (21)	20 (20)

	2017 (平成 29年)	2018 (平成 30年)	2019 (令和 元年)	2020 (令和 2年)	2021 (令和 3年)	2022 (令和 4年)	2023* (令和 5年)
한일관계	28 (42)	39 (41)	18 (37)	15 (35)	164 (252)	142 (264)	(225)
- 한일정책대화	4.5	3.7			2.8		
- 한일포럼	11	5.5	9.1	5.1	11.9		
- 한일시민교류촉진	1.8	1.8		0.5			
- 한국인유골조사· 반환사업	연기	연기					
- 한국인유족추모 순례지원사업	3.8	연기					
- 한일역사공동연구 (역사가회의)	2.9	3.7	2.4	3.6	2	3.5	
- 영토문제특별조사	0.4	15	4.3	1.8	156	125	
- 한일외교관교류	0.5	미실행	미실행				
- 한일EPA	1	미실행					
-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사업	-	-	-	-	-	-	-
재사할린 한국인지원							
-재사할린한국인지원 공동사업체	112 (112)	101 (101)	79 (79)	79 (79)	75 (75)	72 (72)	(70)
한일학술문화청소년교류							
-일한문화교류기금	123 (123)	138 (138)	138 (138)	138 (138)	131 (131)	170 (116)	(60)
한일산업기술협력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9 (19)	19 (19)	15 (15)	15 (15)	14 (14)	14 (14)	(13)

* 2023년도는 2024년 3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예산만 표기 (최종검색일: 2024.1.7).

※ 연기, 미실행 외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는 공란으로 둠.

출처: 外務省, “行政事業レビュー”. https://www.mofa.go.jp/mofaj/annai/yosan_kessan/kanshi_kouritsuka/gyosei_review/index.html; 政府の事業が検索できるサイト, “JUDIT” <https://judgit.net/> 각 년도 자료 참고하여 필자 작성.

(2) 대일이해촉진교류실 - 대일이해촉진교류프로그램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일이해촉진교류프로그램은 여러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청년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향상시키고,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을 살린 활동을 통해 친일파 및 지일파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일본 외교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과 아시아 대양주, 북미, 유럽, 중남미와의 사이에서 고등학생부터 사회인을 대상으로 약 10일 정도의 초빙·파견 프로그램 및 온라인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별 테마와 전문성에 따른 강의나 현장 시찰, 관계자와의 의견교환 및 교류, 문화 체험 등을 실시하고, 참가자는 일본에 대한 대외 발신, 귀국 후의 활동 발표를 실시한다. 한국의 경우, 앞서 알아본 JENESYS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다음 [표 4-2]는 이와 같은 대일이해촉진교류프로그램 중 한국에 관련된 집행액 및 비율, 순위 등을 알아본 것이다.

[표 4-2] <외무성-대일이해촉진교류실> 대일이해촉진교류프로그램 중
한국 관련 집행액 및 비율(2015~2023)

(단위: 백만 엔, %)

	2015 (平成 27年)	2016 (平成 28年)	2017 (平成 29年)	2018 (平成 30年)	2019 (令和 元年)	2020 (令和 2年)	2021 (令和 3年)	2022 (令和 4年)	2023* (令和 5年)
총액	4,947	3,327	2,761	2,621	2,353	1,847	1,679	2,533	638
한일학술 문화 청소년교류 공동사업체	747	323	268	255	228	178	160	239	
비율(%)	15.1	9.7	9.7	9.7	9.7	9.6	9.5	9.4	
순위	2	2	2	2	2	2	2	3	

* 2023년도는 2024.3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예산만 표기 (최종검색일: 2024.1.7).

출처: 外務省, “行政事業レビュー”. https://www.mofa.go.jp/mofaj/annai/yosan_kessan/kanshi_kouritsuka/gyosei_review/index.html; 政府の事業が検索できるサイト, “JUDIT” <https://judit.net/> 각 년도 자료 참고하여 필자 작성.

2) 재외공관 - 주한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한국 내 일본 재외공관은 서울, 부산, 제주도에 총 3곳으로,¹⁰¹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대사: 아이보시 코이치(相星孝一))¹⁰²,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총영사: 오스카 츠요시(大塚剛))¹⁰³,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총영사: 다케다 가쓰토시(武田克利))¹⁰⁴이다. 재외공관에 서는 정치, 경제, 영사, 문화교류 등 한일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문화 및 교류를 중심으로 한 공공외교 활동은 주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보문화원은 1971년 7월 30일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광보관실’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었다. 이후 1988년 1월 1일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광보문화원’, 1993년 4월 1일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공보문화원 활동은 주로 문화행사, 청소년 교류, 조성사업, 홍보활동, 유학 안내, JET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진다.

(1) 문화행사

문화행사는 전시, 공연, 워크숍, 콘테스트 등을 통해 전통예술부터 현대문화까지 다양한 일본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한다. 구체적으로, 1월과 7월 학생들의 방학 일정에 맞추어 테마 전시, 체험, 워크숍, 신년일본문화소개전, 여름일본문화소개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어를 학습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학생 일본어연극 발표대회’, ‘전국 고등학생 일본어 스피치 대회’, ‘대학생 일본어 연극대회’,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대회’, ‘한일교류 말하기대회’, ‘일본가요대회’, ‘한일사회·문화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한일포토콘테스트’, ‘한일축제한마당’ 등도 이러한 사업의 일환이다. 그 밖에 서울 이외의 대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약 일주일에 걸쳐 다양한 일본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재팬위크(JAPAN WEEK)를 격년에 한 번 개최한다. 현재까지 실시된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한일포토콘테스트: 2014년~2023년(10회)
-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2005년~2023년(19회)

101. 일본 내 한국의 재외공관은 주일대한민국대사관을 포함하여 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요코하마, 후쿠오카, 히로시마 총영사관 등 총 10곳이다.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일본 내 우리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jp-ko/wpge/m_20779/contents.do (검색일: 2023.12.5).

102.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https://www.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103.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https://www.busan.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104.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https://www.jeju.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 한일교류 말하기 대회: 2006년~2023년(19회)
- 전국 대학생 일본어 연극대회: 2012년~2023년(9회)
- 전국 학생 일본어 연극발표대회: 2008년~2023년(16회)
- 한국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대회: 2012년~2023년(11회)
- 전국 고등학생 일본어 스피치 대회: 2012년~2023년(12회)
- 전국 고등학생 일본어 비디오 콘테스트: 2023년(1회)
- 한일교류 말하기 대회: 2006년~2023년(19회)
- 일본가요대회: 2004년~2020년(16회-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취소)
- 한일 사회·문화 세미나: 2019년~2023년(4회)
 - 제1회: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 제2회: 일본의 방재대책
 - 제3회: 한일의 고령사회대책 - 요약정책의 차이와 요양실태
 - 제4회: 서로 사랑받는 한국문화·일본문화 - 일본 애니메이션과 한국 드라마

(2) 청소년교류: JENESYS Program

외무성의 대표적인 청소년 교류 사업은 대일이해촉진교류프로그램(Japan-East Asia Network of Exchange for Students and Youths, JENESYS)이다. 외국·지역 우수 청년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향상시키고 프로그램 경험을 활용하여 친일파 및 지일파를 발굴/육성하고, 외교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참가자의 전문성, 관심 분야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및 외교정책 등에 대한 대일 이해를 촉진하고 참가자로부터의 대외 발신 강화를 도모한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Cool Japan 리포터, 일본문화원 리포터, 아시아국제학생영화제 등이 있다.

Cool Japan 리포터¹⁰⁵는 외무성 초청으로 일본 방문에서 일본의 각종 시설 시찰, 학교 방문, 방일 테마에 관련된 강의 청강, 일본 청소년과 교류 등 후 직접 보고 느낀 일본의 매력과 방문 성과에 대해 발표 및 보고서를 제출하고, 귀국 후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일본 방문 소감과 자신이 발견한 일본의 매력 등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한다. 지난 JENESYS 2023 겨울 모집의 경우, 30세 미만의 한국 대학생 약 39명이 선발되었다. 본 사업은 외무성이 주관하고 있으며, 일한문화교류기금이¹⁰⁶ 실시한다. 총영사관이 있는 영남 및 제주 지

105. JENESYS 2023 Cool Japan. https://www.kr.emb-japan.go.jp/what/cooljapan2023_02.html

106. 日韓文化交流基金. “青少年交流”. <https://www.jkcf.or.jp/projects/category/youth/> (검색일: 2023.12.5).

역의 거주자는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관할한다.

일본문화원 리포터¹⁰⁷는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고 일본문화원 주최 행사, 관련 소식을 취재, 전달하는 리포터로서 활동한다. 이들에게는 일본 콘텐츠 전문 방송사 채널W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한국 내 일본문화, 일본의 다양한 매력, 소개하고 싶은 일본 소식 등을 취재하고 자신의 특기를 살려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소개하는 활동을 한다. 2022년에 선발된 8기 리포터(2022.7~2023.3, 9개월간 활동)의 경우, 만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한국인 대학생/대학원생/일반인 6명 내외로 이루어졌으며, 일한문화교류기금에서 주관한다.

아시아국제학생영화제(Asian International Children's Film Festival)¹⁰⁸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제작한 3분짜리 영상 작품을 통해 경쟁하는 영화제로, 주한일본대사관에서 대한민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선 대회를 개최하여, 본선 후보작 3개 작품을 선발, 선발된 작품의 제작자들을 JENESYS 방일 프로그램에 초대하는 구성이다. 참가자들은 방일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에서 개최되는 본 영화의 본선 대회에도 참석한다. 한국인 고등학생이 대상이며,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주관한다.

[표 4-3]은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JENESYS 프로그램 중 청소년(중/고/대학생) 교류 사업 실적을 조사한 것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나, 한 해 수백 명에 달하는 한일 청소년들이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도 실시되었다. 단기간이었으나, 지속 시행 사업으로는 ‘교환유학생 지원사업(2008~2010)’, ‘청년언론인 초빙사업(2009~2011)’, ‘한일 청소년 공동봉사활동사업(2009~2012)’,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지원사업(2008~2011)’, ‘한일 고등학생 교류캠프(2008~2011)’, ‘한일학생 미래회의(2009~2011)’, ‘관민청년교류사업(국회의원 초빙 등)(2008~2011)’, ‘한일보이스카웃/걸스카웃교류사업(2008~2012)’, ‘재사할린 한국인유학생 수용사업(2008~2012)’, ‘한일 자매도시 교류유스컵(Youth Cup)(2009~2014)’, ‘한일축제한마당 관련 사업(2008, 2010~2017)’, ‘한일

107. 일본문화원. https://www.kr.emb-japan.go.jp/what/culturalcenter_reporter_8th.html

108. Asian International Children's Film Festival. <https://asianfilm.chu.jp/>; 제16회 ‘아시아국제학생영화제’ 한국예선 응모 작품 모집 https://www.kr.emb-japan.go.jp/event/aicff_2023.html (검색일: 2023.12.5).

중 청소년 교류사업(2008~2012)', '청소년 영화교류 사업(2010~2016)' 등이 있다.

[표 4-3] JENESYS 청소년(중/고/대학생)교류 사업실적*(2008~2022)

연도	방한(파견)		방일(초빙)		후속사업		비고
	단체 수	참가자 수**	단체 수	참가자 수*	일본	한국	
2008	9	319	21	711			
2009	9	322	20	686			
2010	8	307	20	749			
2011	9	325	12	451			
2012	9	306	22	778			
2013	8	297	28	936			
2014	9	310	17	675			
2015	9	304	19	1,078			
2016	9	304	25	783			
2017	10	346	26	797			
2018	11	396	23	636			
2019	4	162	17	502			
2020	1	30	9	243	258	294	온라인 실시
2021	3	104	15	426			온라인 실시
2022	3	86	4	101	47	42/213***	온라인/ 오프라인

* 청소년교류 외 기획공모사업, 일본소개사업, 위탁사업 등에 의한 교류는 미포함.

** 참가자 수 내 단장 및 인솔자 포함.

*** 213명: JENESYS 동창인의 밤(3회, 국내/온라인 개최).

출처: 일한문화교류기금. "청소년교류" 각 년도 사업실적 참고하여 필자 작성.

<https://www.jkcf.or.jp/projects/category/youth/> (검색일: 2023.12.31).

이 밖에도 이벤트성 사업으로,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3개국 아동 타임캡슐 매설사업(2010)', '한일 청소년 예술교류사업(2011)', '한일 청년 역사학자 교류사업(2012)', '고교생 장기초청 사업(2012)', '기금 창립 30주년 작문경연대회 및 방일 및 방한 연수 여행(2013)',

‘한국청소년 바둑 교류 방일단 사업(2013)’,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한국 청소년 음악교류단 사업(2015)’, ‘한국 중견연구자 초청사업(2016)’, ‘한중일 Youth Summit(2016)’ 등이 실시되었다. 한편, 2013년 이후부터는 위탁사업 형태로 다음 [표 4-4]와 같은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4-4] JENESYS 위탁/기획 공모사업 실적(2013~2022)

연도	합계		연도	합계	
	사업 수(건)	참가자 수(명)		사업 수(건)	참가자 수(명)
2013	8	510	2018	7	165
2014	5	339	2019	2	30
2015	30	1393	2020		
2016	20	775	2021(온라인)	1	19
2017	10	220	2022(온라인)	1	24

출처: 일한문화교류기금. “청소년교류” 각 년도 사업실적 참고하여 필자 작성.

<https://www.jkcf.or.jp/projects/category/youth/> (검색일: 2023.12.31).

(3) JET 프로그램¹⁰⁹

일본 내 외국어 교육의 내실화 및 청년 교류를 통한 지역 차원의 국제 교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일본과 외국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일본의 국제화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 교류 활동에 종사하거나, 어학 지도자, 지방공공단체의 국제 교류 담당 부서 등에 배치되어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위원회 또는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JET 프로그램은 1987년에 시작되었으며, 유치국 수는 초년도 4개국에서 50개국으로, 참가자수는 초년도 848명에서 5,831명으로 증가하였다(2023년 7월 기준). 2023년도 5,831명 기준 한국은 총 45명이 참여하였다.¹¹⁰

109. JET Programme. <https://jetprogramme.org/ja/>

110. JET Programme. “参加国” <https://jetprogramme.org/ja/countries/>

(4) 조성사업: 초청 펠로우십¹¹⁾, 오피니언 리더 육성코스

초청 펠로우십 사업은 한일 상호 간의 이해를 촉진하며 양국의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일관계가 중심이 된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양국 국민의 우호, 협력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테마로 한 조사나 연구활동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연구자와 문화인들을 초청하여 연구·조사 등의 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견·젊은 세대 연구자들의 체재 연구를 지원한다.

오피니언 리더 육성코스는 양국 국민 간의 우호·협력 관계 촉진 연구를 테마로 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한일 양국의 여론,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 등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진 및 중견 세대 지식인을 초빙·파견하여 조사·연구 등의 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체재연구를 지원한다.

[표 4-5] 펠로우십 사업실적(1989~2023)

연도	방한	방일	합계	연도	방한	방일	합계	연도	방한	방일	합계
1989		5	5	2001	6	35	41	2013	4	22	26
1990		29	29	2002	4	33	37	2014	2	17	19
1991		13	13	2003	3	29	32	2015	6	15	21
1992	1	21	22	2004	4	24	28	2016	1	6	7
1993		17	17	2005	3	19	22	2017*	1	5	6
1994		24	24	2006	5	22	27	2018**	3	9	12
1995		39	29	2007	3	20	23	2019**	4	8	12
1996	9	35	44	2008	4	17	21	2020		2	2
1997	3	33	36	2009	5	14	19	2021	2	2	4
1998		29	29	2010	4	15	19	2022	1	11	12
1999	3	33	36	2011	1	21	22	2023	4	12	16
2000	5	33	38	2012	3	20	23	-	-	-	-

* 한일신시대지원프로그램 4건 실적 미포함.

** 오피니언리더육성코스 방한/방일 실적 포함.

출처: 일한문화교류기금. “펠로우십” 각 년도 사업실적 참고하여 필자 작성.

<https://www.jkcf.or.jp/projects/category/fellowship/> (검색일: 2023.12.31).

3)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¹¹²

JF는 일본의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 기관으로서, 1972년에 설립된 일본 외무성 소관 특수법인을 전신으로, 2003년 10월 1일 독립행정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2023년 9월 현재, JF는¹¹³ 25개국, 26개의 해외 사무소와 국내 부속 기관 및 지부를 두고 있으며, 서울문화센터는 2002년에 설립된 19번째 해외사무소이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은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이해와 국제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또한 문화뿐만 아니라 기타 분야에서 세계에 공헌함과 동시에 좋은 국제환경을 정비하여, 조화로운 대외관계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문화센터는 문화정보실(도서관), 세미나실 등 각종 문화 시설을 갖추어 한국의 지식인, 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조사·연구도 실시하고 있다.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의 사업은 ① 문화예술교류, ② 일본어교육, ③ 일본연구 및 국제대화로 나누어지며, 연수·지원 사업으로, ① 이수현씨 기념사업, ② 센터조성 프로그램, ③ 본부조성 프로그램 등이 있다.

(1) 주요사업

문화예술교류 사업은 ‘문화예술을 통한 국제 교류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는 관점하에, 교류사업 및 공동제작, 새로운 문화 창조 사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인물교류에 의한 일본문화 소개, 시민 및 청소년 교류, 조형미술교류, 무대예술 교류, 출판 교류, 영상 교류 등이 이루어진다.

일본어교육 사업은 일본어 교육 종사자, 일본어 및 일본문화 학습자 지원, 일본에 대한 이해 및 상호이해촉진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등 일본어 교사의 연수, 방일활동 등 지원, 중등 교육 학습자의 일본어 및 일본문화 활동, 이수현씨 기념 한국 청소년 방일연수 지원, 일본어 학습자 및 일본어 교사의 세미나, 워크숍, 일본어강좌, 전문

111. 펠로우십. <https://www.jkcf.or.jp/projects/category/fellowship/>

112.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https://www.jpf.or.kr/index/>

113. 国際交流基金 “3つの交流事業” <https://www.jpf.go.jp/j/project/index.html> (검색일: 2023.12.5).

가 및 연구자 대상의 전문일본어연수 지원, 고등교육기관 등에 학회, 세미나 출강 등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어교육 관련 각종 사업과 일본어능력시험(JLPT), 해외 일본어교육기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연구 및 국제대화 사업은 세계 각국에서 일본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펠로우십 제공, 고등교육기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일본연구 기반정치, 일본연구 네트워크 강화(한국의 일본연구, 차세대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인재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국제대화 인재 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 지원, 일본연구자 지원(펠로우십, 차세대 일본연구자 국외조사 지원 프로그램¹¹⁴) 등을 실시한다.

(2) 연수 및 지원사업

이수현씨 기념사업은, 2001년 일본 도쿄 지하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숨진 故 이수현(당시 26세)씨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 및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는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 고등학생 20명을 선발하여 약 2주간의 방일연수를 실시, 일본의 사회·문화에 대한 강의 및 문화시설/유적지 견학, 일본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교류기금, (사)한일협회,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제주특별자치도, 고려대 글로벌 일본연구원 및 일어일문학과가 공동주최이고,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서울사무소가 협력한다.

센터조성 프로그램은 한일 양국 간의 상호 이해 촉진을 목적으로 전개되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문화예술교류 분야 및 시민·청소년교류 분야>에서 전람회, 무대공연, 영화제, 문화인 초빙, 교류회·워크숍, 시민 및 청소년을 위한 방일프로그램 등, <일본어교육 분야>에서는 일본어교사 연수회, 일본어교육 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일본어 스피치, 일본어 퀴즈대회, <일본연구·지적교류 분야>에서는 강연회,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동 연구 등을 실시한다.

114. 차세대 일본연구자 국외조사 지원 프로그램. <https://jfs-niken.org/>

[표 4-6] 이수현씨 기념사업 실적(2002~2023)

구분	연수기간	응모자 수	참가자 수
1기	2002.2.18~2.28	144명	10명
2기	2003.2.17~2.27	100명	10명
3기	2004.2.16~2.26	137명	10명
4기	2005.2.14~2.24	30명(2차)	10명
5기	2006.2.13~2.23	274명	10명
6기	2007.2.13~2.23	347명	20명
7기	2008.2.12~2.22	137명	20명
8기	2009.2.10~2.20	214명	19명
9기	2010.2.09~2.19	329명	30명
10기	2011.1.17~1.27	282명	30명
11기	2012.1.30~2.09	236명(전국 236개 고교 대표 각 1명)	30명
12기	2013.1.07~1.18	268명(전국 268개 고교 대표 각 1명)	30명
13기	2014.1.13~1.25	127명(전국 127개 고교 대표 각 1명)	30명
14기	2015.1.26~2.07	105명(전국 105개 고교 대표 각 1명)	20명
15기	2016.1.25~2.05	83명(전국 83개 고교 대표 각 1명)	20명
16기	2017.2.08~2.22	83명(전국 83개 고교 대표 각 1명)	20명
17기	2018.1.25~2.08	83명(전국 83개 고교 대표 각 1명)	20명
18기	2019.1.30~2.13	111명(전국 111개 고교 대표 각 1명)	20명
19기	2020.1.29~2.12	64명(전국 64개 고교 대표 각 1명)	17명
20기	2021.1.27~2.10	51명(전국 51개 고교 대표 각 1명)	21명
21기	2022.1.13~1.28	41명(전국 41개 고교 대표 각 1명)	17명
22기	2023.2.01~2.15	85명(전국 85개 고교 대표 각 1명)	20명

출처: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이수현씨 기념사업 사업실적” 참조하여 필자 작성.

https://www.jpf.or.kr/index/s4/s4_3_2.php (검색일: 2023.12.11).

본부조성 프로그램은 공모로 이루어지며, 개인 및 단체에 조성금, 연구 장학금,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이벤트 기획 및 실시, 대학 등의 해외 단체에 지속적인 지원과 조사에 근거한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교류>를 위해 해외 전 조성, 이시바시재단/일본국제교류기금 일본미술리서치펠로우십, 번역출판조성, <해외의 일본어 교육>을 위해 일본어교사, 전문일본어연수, <일본연구 및 국제대회/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일본연구 펠로우십 일본연구프로젝트 등을 지원한다. 다음 [표 4-7]과 [표 4-8]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년간 국제교류기금 본부조성 프로그램의 사업실적을 조사한 것이다.¹¹⁵

[표 4-7] 국제교류기금 본부조성 프로그램 사업실적(2003~2009)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해외전		1	2	3	2	3	1	3
해외일본영화제			3	3	4	2		
해외일본어교육네트워크		2	1					
해외일본어강좌		1						
해외일본어변론대회		5	2	1	3	4		
고등학교 일본어교사연수		50	50	50	50	56		
번역/출판		2	5	6	5	4	5	4
각국 일본어교육 추진							2	
일본어교재 기증		12	3	8	6	6	3	
도서기증		6	2	3	2			
해외일본어연수(상급연수포함)		12	1	7	3	2	4	2
일본연구직원교수파견		1	1					
전문 일본어연수	5/6/8개월	6	3	6	9	6	2	3
	2개월	6	6				1	5
일본연구 펠로우십	장기							11
	단기	6	5	9	10	9	11	3
	박사논문집필자							5
지적교류 펠로우십							1	
지적교류회의			2	2	2	2	2	6
일본연구리서치/회의		9	6	6	4			
공모조성사업		3						

출처: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본부조성 프로그램 사업실적" 각 년도 자료 참조하여 필자 작성.

https://www.jpf.or.kr/index/s4/s4_5_4.php?wr_id=1 (검색일: 2023.12.13).

[표 4-8] 국제교류기금 본부조성 프로그램 사업실적(2010~2022)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해외전	3	4	3	1	1	0	0	1	1	1	0	0	0	
이시바시재단/ 일본미술 리서치펠로우십											0	1		
다큐멘터리 제작프로그램	-	1	-	-	-	-	-	-	-	-	-	-	-	
번역/출판	4	3	5	1	3	1	4	1	1	1	1	0	1	
해외 일본어연수	2	4	2	0	1	0	3	0	1	0	0	2	0	
전문 일본어 연수	5/6/8 개월	3	4	4	8	5	8	7	8	7	2	2	0	1
	2개월	5	5	7	2	1	2	3	4	1		0	0	1
일본 연구 펠로우십	장기	11	14	10	4	3	3	3	2	1	3	1	2	0
	단기	3	4	3	2	3	1	2	1	1	3	2	2	4
	박사 논문 집필자	5	7	4	6	5	5	6	3	3	2	2	2	0
지적교류회의	6	12	5	4	3	4	4	2	0	1	0	0	0	
일본연구 프로젝트	-	-	-						2	1	1	0	0	2

출처: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본부조성 프로그램 사업실적” 각 년도 자료 참조하여 필자 작성.

https://www.jpf.or.kr/index/s4/s4_5_4.php?wr_id=1 (검색일: 2023.12.13).

2.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 특징과 한계

앞서 조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할 때,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 활동은 비교적 다양한 프

115.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사업실적은 1998년부터이지만, 서울사무소가 설립된 것이 2002년이었음을 고려해 사업실적은 2003년을 시작점으로 하였다.

로그램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대일 이해 촉진 프로그램에서 한국은 그 비중이 적은 편은 아니다. 예를 들어, [표 4-2]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15년 이후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일 이해 촉진 프로그램은 지속 추진되어 왔고, 그 비율도 전체 예산 중 약 10%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 이는 전체 대상 국가 중 2위에¹¹⁶ 해당하는 수치로, 한국과의 교류가 비교적 높은 순위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류가 꾸준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0년대 일본 공공외교가 한국에 대한 공공외교 방향을 설정하면서 제시한 방향과도 그 흐름을 같이 한다.

“韓国に対しては、民主主義・市場経済といった基本的価値を我が国と共有しているとともに、既に日韓両国の往来者数が約450万人(平成18年)に達するなど、緊密な市民間交流が存在し、両国関係を支える基盤となっていることを踏まえ、市民レベルの交流を一層促進していく。特に、未来志向の関係を築くべく、若年層をターゲットとした市民参加型の事業に重点的に取り組んでいく(例:「日韓交流おまつり」(平成17年9月、18年9月、19年10月。於:ソウル)、教育(修学旅行等)や観光分野の交流促進)。

“한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시장경제라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시에 이미 한일 양국의 왕래자 수가 약 450만 명(2006년)에 달하는 등 긴밀한 민간교류가 존재하고, 이것이 양국 관계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민차원의 교류를 한층 촉진해 나간다. 특히, 미래지향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시민참여형 사업에 중점적으로 임한다. (예: 한일축제한마당, 교육(수학여행 등), 관광분야의 교류 촉진 등)”

- 해외교류심의회. “일본의 발신력 강화를 위한 시책과 체제: 일본을 이해하는 사람과 팬을 늘리기 위해”¹¹⁷ 중, 일부 발췌(필자 번역)

116. 2015년~2021년까지 1위는 아세안 지역이었고, 2022년의 경우, 1위 아세안, 2위 중국이었다.

117. 海外交流審議会. 「我が国の発信力強化のための施策と体制-「日本」の理解者とファンを増やすために」(2008.2) p.18. https://www.mofa.go.jp/mofaj/annai/shingikai/koryu/pdfs/toshin_ts.pdf (검색일: 2023.12.30).

일본에서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한일교류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드는 길이자, 양국 관계를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보았다. 따라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교류에 높은 비중을 두고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교류만큼은 한일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비교적 꾸준히,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조사기간: 2023.7.7~7.10) 한국리서치에서 발표된 ‘일본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¹¹⁸ ‘정직 vs 정직하지 않음’, ‘신뢰 vs 불신’, ‘책임감 vs 무책임’, ‘권위적 vs 민주적’, ‘위협적 vs 위협적이지 않음’, ‘공격 vs 평화’, ‘억압 vs 자유’, ‘적 vs 친구’ 중 어느 쪽인지를 물었는데, ‘위협적 vs 위협적이지 않음’을 제외한 전 문항에서 부정인식이 긍정인식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4-9] 참조).

다만, 응답에 대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 18~29세의 젊은 세대가 30대 이상 기성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직하지 않다’, ‘불신’, ‘무책임’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정직하다’, ‘신뢰’, ‘책임감’ 등의 긍정적 이미지를 월등히 상회한다. 즉, 10대, 20대 젊은 층의 대일 인식이 다른 세대에 비해 긍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정인식이 긍정인식보다 높다는 것이고, 젊은 세대의 인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10대, 20대에 한일교류의 영향을 받은 뒤, 10~20여 년의 시간이 지나 사회인이 된 현재의 30대, 40대의 대일 인식이 매우 부정적임을 고려하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후 수십 년이 경과하면서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음에도 왜 한국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가? 다시 말하면, 일본의 공공외교 정책이 왜 한국에서는 그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가? 앞서 제시한 자료들에 기반한 일본 공공외교의 특징을 한국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그 한계를 찾을 수 있다.

118. 이동한 외. “2023 대일인식조사: 일본 이미지와 한일 양국 역량 비교,”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제241-2호) 여론속의 여론」 (2023.8.2) <https://hrcopinion.co.kr/archives/27263>

[표 4-9] 일본에 대한 세대별 이미지(조사기간: 2023.7.7~7.10)

사례 수(명)		정직 vs 정직하지 않음			신뢰 vs 불신			책임감 vs 무책임																
		정직	정직하지 않음	-	신뢰	불신	-	책임감	무책임	-														
전체	(1000)	8	69	23	12	63	24	10	62	28														
연령	18-29세(164)	10	59	31	18	51	31	10	60	29														
	30대(151)	9	63	28	18	58	24	11	59	30														
	40대(180)	3	81	16	7	72	20	5	72	22														
	50대(194)	7	74	19	8	70	22	7	66	26														
	60대 이상(311)	10	67	24	12	63	25	14	56	30														
사례 수(명)		위험적 vs 위험적이지 않음			평화 vs 공격			자유 vs 억압																
		위험적	위험적이지 않음	-	평화	공격	-	자유	억압	-														
전체	(1000)	20	52	28	12	45	43	25	40	34														
연령	18-29세(164)	28	38	34	18	22	60	28	34	38														
	30대(151)	22	48	30	11	48	41	24	48	28														
	40대(180)	15	58	27	8	52	40	16	50	34														
	50대(194)	13	60	27	7	56	37	22	44	35														
	60대 이상(311)	21	53	26	16	44	40	31	33	36														
사례 수(명)		민주적 vs 권위적			친구 vs 적																			
		민주적	권위적	-	친구	적	-																	
전체	(1000)	12	60	28	15	35	50																	
연령	18-29세(164)	19	38	42	20	26	54																	
	30대(151)	9	61	31	16	37	47																	
	40대(180)	6	68	26	5	46	49																	
	50대(194)	10	65	25	12	40	48																	
	60대 이상(311)	16	62	22	19	29	53																	

출처: 한국리서치. [2023 대일인식조사] 일본 이미지와 한일 양국 역량 비교 중, 일부 발췌.

첫째,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에서 국가이미지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미미했다.

전후 일본 공공외교의 최우선 목표는 ‘전범국’, ‘패전국’으로서의 어둡고,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전후 줄곧 경제 발전과 문화교류를 통해 선진화된 일본의 모습, 긍정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주의 국가 일본의 모습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에서 ‘평화주의 국가’ 이미지를 전파하는 데 한일관계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았고, 그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 35년간 식민지 강압통치를 겪은 한국인들에게 ‘평화국가’ 일본의 모습은 쉽게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미지였다. 그러나 일본의 공공외교 과정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잘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앞서 조사한 자료에 기반하면,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는 그 역사도 길지 않다. 조사 자료에 기반하면,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 프로그램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현재 공보문화원에서 시행하는 교류 프로그램은 대부분 2000년대에 들어서 시작되었고, 대표적인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인 JENESYS 프로그램 실적도 2008년부터 찾아볼 수 있다.¹¹⁹ [표 4-5]에서 알 수 있듯, 외무성 공보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펠로우십 사업에서 1989년부터 방일 펠로우십을 실시한 실적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1998년부터 국제교류기금 본부조성 프로그램 중 한일교류프로그램 실적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서울사무소가 설립된 2002년 이후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일본 공공외교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제교류기금의 서울사무소가 2002년에 들어서야 설립되었고, 26개 사무소 중 19번째 사무소라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이는 1970~80년대 일본이 동남아시아 등에 공공외교 노력을 기울였던 것과도 대조된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반일 운동이 거세게 일었던 동남아시아에서는 국제교류기금 현지 사무소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와 태국 방콕 사무소가 1974년에 설립되었다.¹²⁰ 1965년 한일관계가 정상화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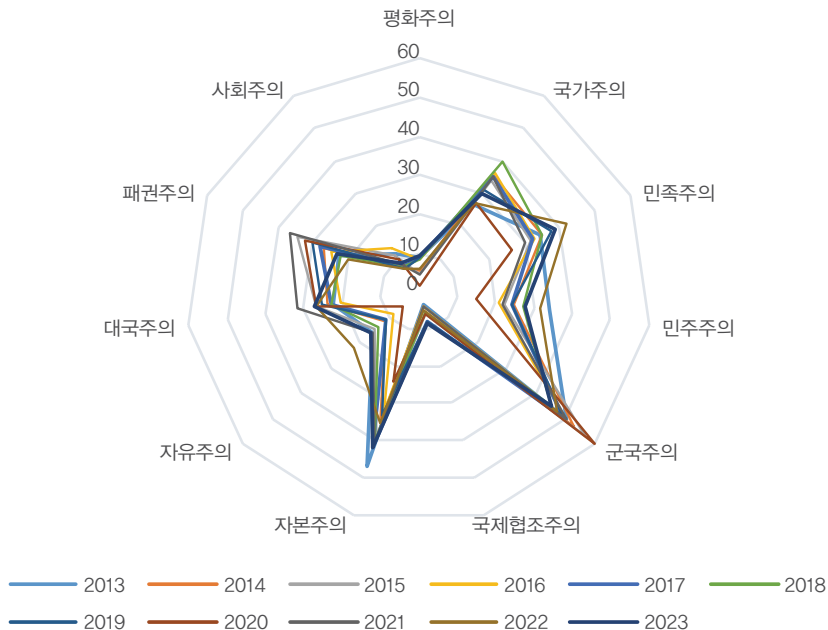
119.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본 보고서는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하므로 이 경우는 논외로 한다.

120. 다만, 일본국제교류기금과 일본대사관의 공보문화원이 한 지역에 같이 있는 것은 한국(서울)이 유일하다. 이는 한반도의 휴전상황을 감안하여 전쟁의 위험에 대비하여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함이지만, 양 기관이 협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마사키 히로키. 2020. “해외공공외교기관 만나보기: 일본,” 김화정 외. 「처음 만나는 공공외교」, 한국국제교류재단, pp.230-267.

었고, 전후 일본의 공공외교가 1970~80년대 일본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함께 진화 및 발전하였음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현저히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표 4-9]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국의 대일 인식은 ‘공격적’이고, ‘억압적’이며, ‘권위적’이고, ‘적’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정인식은 2013년부터 동아시아연구원과 言論NPO에서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림 4-1]과 같이, 한국인들은 일본의 정치·사회 운영방식에 대해 ‘군국주의’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전후 일본이 구축하고자 노력해 온 ‘평화주의’ 국가의 이미지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 여기에는 그동안의 한일관계에서 역사문제가 모든 이슈를 다 덮을 만큼 비중이 컸던 탓도 있지만, 독도 영유권 주장, 헌법 개정 시도 등 영토와 안보에 있어 일본이 한국에 보여온 비우호적이고, 위협적인 태도가 한국인들로 하여금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해당 조사에서,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이유로, △식민지배 역사 반성 부재, △과거사 문제의 해결 노력 부족, △독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1] 일본의 정치·사회 운영방식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2013~2023)



출처: [EAI-言論NPO]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각 년도 조사 결과 참조 및 필자 작성.

한편, 일본은 전후 질서 재편 속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대미외교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는 곧 승자에 대한 패자의 이미지 변화 노력으로 나타났다. 전후의 일본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아가 높은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점차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해 왔다.

예를 들어, 일본은 대미공공외교를 시행하는 데 있어 “미국과 일본”이라는 관점에 기반한 글로벌 과제 혹은 양국 공동의 과제에 대해 집중하며, 일본이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를 리드할 파트너임을 주지시키고, 미국의 정책에 일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또한 자국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미국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미국과 함께하는 일본’, ‘미일파트너십’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¹²¹ 다시 말하면, 과거 자국의 식민지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이웃 국가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사죄, 자기 성찰에 기반한 국가 정체성 및 이미지의 변화보다는 미국과 서구 중심의 세계 편입과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피력하며, ‘평화주의 국가’ 일본을 외쳐온 것이다.

일본의 대미외교와 대한국외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적어도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에서 한국에게 일본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지, 한국과 일본이 어떠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는지 등은 명확하지 않다. 즉, 적어도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구호’ 외에 어떠한 것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등의 국가적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 역사 갈등과 독도 문제 등으로 한국은 일본을 신뢰하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일본이 노력해온 ‘평화주의 국가’의 이미지는 한국인들의 공감과 이해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공헌과 글로벌 과제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와 여성인권 신장에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이웃 나라인 한국과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순적 행동은 그 진의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없었다. 일본은 빠른 속도로 이룬 경제 발전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다양한 글로벌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높이며, 자국의 영

121. 한인택·최은미, 2021. 「미 지방 민간 대상 정책공공외교 관련 주요국 사례 연구」. (재)국제평화재단.

향력을 강화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은 한국에게 역내 주도권을 확보하여,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모습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둘째, 한일관계의 부침 속에서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 사업은 안정적이지 않았다.

주지하듯이, 한일관계는 오랜 기간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과 집권 세력의 이해관계 및 일본에 대한 인식, 일본과의 관계 설정 정도에 따라 부침(浮沈)을 겪어왔다. 이는 전후 한일 양국이 국가정체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6.25 전쟁 이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로 분단된 한국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인식은 양분되어 있다. 즉, 일본을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국내에서 크게 대립하면서 대일정책에 대한 변화와 부침이 있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¹²²

한편, 일본은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를 전개하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 비중과 중요성을 크게 두지는 않았다. 일본의 50, 60대 이상의 기성세대가 한국을 업신여기는 태도(‘上からの目線’: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를 보이거나, 일본과 대등한 관계로 여기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 확대 등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점차 커지자,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 주류가 되었다.

이와 같은 양국의 불안정한 국내 정치적 상황과 한일관계의 정치적 이용 속에서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공공외교 프로그램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상당 수의 프로그램들이 축소 혹은 중단되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 4-1]에서 알 수 있듯, 일본 외무성의 한일관계 관련 주요 사업 중, ‘한국인 유골 조사 및 반환사업’, ‘한국인 유족 추모 순례 지원사업’, ‘한일역사공동연구’, ‘재사할린 한국인 지원사업’ 등 한일역사문제와 관련된 사업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오랜 기간 연기되었거나, 그 규모가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예산 규모가 축소된 것은 유족들의 고령화 및 사망 등에 따른 사업 대상의 규모가 작아졌거나, 양측 간 논의가 난항을 겪으며,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인 JENESYS 프로그램에서 기존의 방일/

122. 최은미, 2018. “국가정체성을 통해 본 한일 갈등의 인식 차이 연구,” 『아세아연구』61(4), pp.229-260.

방한 사업은 유지하고 있으나([표 4-3] 참조), 그 외 과거에 시행되었던 사업들이 상당 부분 중단되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시행되던 ‘교환유학생 지원 사업(2008~2010)’, ‘청년언론인 초빙사업(2009~2011)’, ‘한일청소년 공동봉사활동사업(2009~2012)’,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지원사업(2008~2011)’, ‘한일고등학생 교류캠프(2008~2011)’, ‘한일 학생 미래회의(2009~2011)’, ‘관민청년교류사업(국회의원 초빙 등)(2008~2011)’, ‘재사할린 한국인 유학생수용사업(2008~2012)’, ‘한일 보이스코아웃/걸스 코아웃교류사업(2008~2012)’, ‘한일자매 도시교류Youth Cup(2009~2014)’, ‘한일중청소년교류사업(2008~2012)’, ‘청소년 영화교류 사업(2010~2016)’ 등은 현재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는 청소년 방한/방일 사업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

위탁/기획공모 프로그램의 경우 2013년부터 시작해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2015년에 30건(참가자 1,393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6년 20건(참가자 775명), 2017년 10건(참가자 220명), 2018년 2건(참가자 165명)으로 감소해 2019년에는 2건(참가자 30명)에 불과했다([표 4-4] 참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2021년 사업건수 1건(참가자 19명), 2022년 사업건수 1건(참가자 24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2023년 코로나19 이후의 상황과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 속 변화 정도를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 지난 수년간 프로그램 건수와 참가자 수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외무성이 일한문화교류기금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펠로우십 사업 또한 1989년 시작한 이래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방한/방일 합계 30~40명을 선발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6년은 7명(방한 1명, 방일 6명), 2017년은 6명(방한 1명, 방일 5명)으로 한 자리 수를¹²³ 기록하였다([표 4-5] 참조).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의 사업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관찰된다. [표 4-7]과 [표 4-8]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07년과 2008년을 기점으로 해외 일본어 변론대회, 고등학교 일본어교사연수 등을 비롯한 많은 일본어 관련 프로그램들이 중단되었고, 번역/출판, 일본어 교재 기증, 전문 일본어 연수 등이 축소되었다. 또한, 일본연구 펠로우십, 지적교류회의, 일본연구 프로젝트 등 일본연구 관련 사업들도 상당 부분 축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3. 다만, 2016년의 경우, ‘한일신시대지원프로그램’ 4건의 별도 실적이 있다. 2017년은 오피니언 리더 육성코스(방한/방일)를 포함해도 한자리 수를 기록하였다.

이를 시대적 흐름에 맞춘 변화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전체적인 프로그램 종류와 규모가 작아진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일관계의 부침과 국내 정치의 상황 변화 속에서 양국의 교류 사업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한일교류 프로그램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 양국에서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반감 및 혐오의 감정을 이용한 정치화와 상업화 등으로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되기도 하였다.

셋째, 일본 공공외교의 한 축인 ‘친일파/지일파 양성’에 대한 한국 내 반감을 간과하였다. 일본에 친근감을 갖는 사람 혹은 집단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친일파’라는 표현은 한국에서 일본과의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 사회적 거부감을 갖는다. 즉, 한국에서 ‘친일파’는 일제 강점기 일제와 협력하여 같은 한국인들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데 앞장선 ‘반민족 행위자’, ‘매국노’의 의미와 맞물린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사용되는 현대적 의미의 ‘친일파’는 글자 그대로의 일본에 대한 친근감, 호감, 우호의 의미보다는 역사적 의미가 가미되어 ‘지나친 일본 추종 및 굴종’의 의미로 해석된다.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던 2019년도에는 ‘신(新)친일파’, ‘토착왜구(土着倭寇)’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친일파’가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일본에 우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일본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일정 정도의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에서 이러한 한국 내 인식을 고민한 흔적은 찾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한국 여론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일본 외무성에서는 미국, 캐나다, 유럽, 아프리카, ASEAN, 호주, 인도, 중앙아시아, 중동 등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대일여론조사(海外における対日世論調査)¹²⁴’를 시행하고 매년 발표하는데, 이 중 한국의 대일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는 없다. 결국 한국의 일본에 대한 여론 분석과 변화 양상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적교류에만 높은 비중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주요 공공외교 사업들은 젊은 세대, 즉, 청년을 대상으로

124. 外務省. “海外における対日世論調査”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pr/yoron.html>

한 인적교류를 지속해 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일본에 대한 한국의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대부분 역사 문제와 안보 위협 등에서 기반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양국의 인식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은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그저 왕래(往來: '왔다 가는') 형태의 교류만 지속된다면, 결국 한국 젊은 세대의 일본에 대한 친근감은 높아진다 하더라도, 일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반한 협력, 그리고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은 여전히 요원할 수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젊은 세대 간 교류가 '사고(思考)의 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없는 과거사 문제와 역사 인식의 차이는 기성세대와 미디어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간접적 기억 속에서 그대로 답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V. 한국에의 합의 및 정책적 고려사항

민간교류는 중요하다. 교류의 가시적인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고, 이 또한 단기간 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직간접적인 교류는 상대에 대한 친근감 형성에 기여하고, 스스로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친근감은 우호관계 형성에 유효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류는 곧 상대국에 대한 관심 혹은 필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간에서의 활발한 교류는 정부 간 관계 악화기에는 갈등의 충격을 줄여주는 완충제(buffer)이자 관계 회복에 속도를 높이는 촉진제(facilitator) 역할을 한다. 민간에서의 교류 증가가 한일관계의 부침(浮沈) 속에서도 양국 관계 개선과 발전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수의 급격한 증가와 지속되는 한일교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정적인 대일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점에 주목하며, 한국에 대한 일본의 공공외교 정책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대일 인식을 변화시키는 원인을 일본의 정책에서만 찾을 수는 없지만, 자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외교 정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궁극적으로 해당국 관계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공공외교 본연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일본은 한국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및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비교적 꾸준히, 그리고 높은 비중으로 추진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한일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특수성, 한국의 대일여론 특징 등을 면밀히 파악하거나, 분석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한국의 부정적 대일여론을 바꾸기 위한 근본적 노력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과 한일관계의 정치적 및 상업적 이용 속에서 실제로는 많은 공공외교 프로그램이 중단 혹은 축소되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에게 어떠한 합의를 주는가?

【한일관계】

- 한일 양국은 한일협력의 중요성과 비전, 그리고 이익을 재정의하며, 상대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하며 양국관계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

전후 일본의 공공외교 역사 속에서 한국의 비중은 크지 않았다. 일본이 수십 년간 미국을 비롯한 서양 각국과 동남아 지역 등에서의 대일 인식에 대해서는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 온 것과 달리, 지리적 및 지정학적 중요성을 갖는 한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충분치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전후 일본의 역사는 미국과 유럽 각국에 보인 관심과 적극성에 비해 한국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고, 그 관심 또한 적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고조되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일협력의 비전과 이익을 재정의하고, 상대국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하며 양국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은 일본에게 보다 활발하고, 확대된 형태의 한일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의사와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는 새로운 것에 대한 적극적인 시도보다는 안정적인 사업을 소극적으로 시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교류 양상을 넘어 보다 진취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의사와 의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한일관계 속 발전적인 교류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향후 양국이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떠한 실질 협력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일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언들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제언의 기저에는 한일 양국의 긍정적인 상호인식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한일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비록 본 연구의 범위를 ‘한국의 대일 인식과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정책’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대한국인식과 한국의 대일공공외교정책’은 다루지 않았지만, 한일 양국의 우호적인 상호인식은 양국 관계 증진 및 상호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바꿔 말하면, 한국의 대일 인식 변화는 한국의 대일정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 **한일교류 프로그램 내, 한일 갈등과 부정적 상호인식의 근본 원인인 역사 문제를 담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흔히 한일협력 과제를 이야기할 때, 다루기 어렵고 화두를 던지기조차 쉽지 않은 정치, 외교, 역사보다는 과학, 기술, 산업 등의 교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은 교류 또한 중요하지만, 양국 갈등의 본질을 다루지 않는 것은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기능주의에 기반한 한 영역에서의 협력이 다른 영역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지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수십년간의 한일관계에서 수차례 증명되었다. 과거에 매몰되어서도 안 되지만,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된다. 함께 기억하고, 성찰하며, 앞으로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과정에서 과학, 기술, 산업 등 이공계열에서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정치, 외교, 역사 등 인문사회계열의 담론 형성과 실천적 정의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부담, 그리고 상호인식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지만, 양국 관계의 발전, 그리고 한국 주도의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일본에 요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 단순 ‘왕래’를 넘어 양국 간 상호인식의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추진해야 한다.

- **청년층 대상의 교류를 넘어 ‘전세대·전방위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 과정을 살펴보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젊은 세대, 즉, 청년층의 교류에 힘을 쏟고 있다. [별첨 1]의 한일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류 프로그램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관찰된다. 하지만 미래가 단순히 시간의 흐름, 즉, 연령과 세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령에 기반한 교류를 넘어 보다 진취적인 사고와 다양한 시각을 담으려는 콘텐츠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국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 정치인, 학계 및 전문가 등 오피니언 리더들 간 전략 대화 및 소통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등 미래 세대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 및 4~50대 부모 세대 간 교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교류 등을 확대 및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달라진 시대와 세대에 발맞춘 새로운 교류 방식에 대한 고민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별첨 2]의 국내 일본 관련 단체들과 적극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공공외교】

-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각국의 특성에 맞춘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K-pop, K-drama 등 한국문화가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며,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 속에서 한국의 공공외교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공공외교 역사는 일본보다 길지 않다. 한국의 공공외교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0년을 외교부가 ‘한국 공공외교의 원년’을 선포하면서부터이다. 물론 2010년 이전에도 ‘문화외교’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의 외교활동을 해 왔지만, ‘공공외교’로 공식화된 것은 2010년 이후부터이다. 2010년 한국의 공공외교는 정무외교, 경제외교와 더불어 3대 외교정책분야로 격상되었으며, 2011년 공공외교 대사직이 신설되었고, 2016년 공공외교법이 제정되었으며, 정책공공외교와 문화공공외교 담당조직의 세분화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가능하게 되었다. 2016년 2월에 제정(2016.8 발효)된 공공외교법은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차 공공외교기본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을 통해 볼 때, 한국의 공공외교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불과 10여 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과정 속에서 한국은 경제, 문화 등 많은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동시에 한국에 대한 기대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과거 일본이 급속한 경제 성장 이후,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역할론이 대두되고, 동시에 일본의 독특한 문화, 일본어 등이 주목받으며, 일본의 공공외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와 유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시 일본의 공공외교 전략과 발전과정은 한국에게 주는 함의가 작지 않다. 특히, 일본이 세계를 대상으로 전후 자국의 이미지 변화에 놀라운 성공을 거두면서도 한국, 중국 등 주변국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는 점은 반면교사 삼아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곧 한국의 공공외교 전략에서 각국과의 역사적 배경 및 대한국 인식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한국음악, 한국드라마, 한국음식, 한국문화, 한국어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높은 호감도를 보이지만, 역사문제 있어서

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한국에 대한 피로감(韓國疲れ)을 호소하는 의견이 적지 않고, 정권 교체에 따라 대일정책이 달라진다는 인식도 크다. 양국 역사 인식의 괴리를 논하기 이전에, 한국의 생각과 입장을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이에 대해 일본의 공감을 얻고 있는지, 대일공공외교 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동남아, 중남미 지역 등 한국외교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공공외교도 수행되어야 한다.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의 4강 외교 및 양자외교에 치중되어 있는 우리 외교의 외연을 인도-태평양 지역 등으로 확대하여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우리의 영향력을 보다 확대하며,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여하고, 세계 각국과 함께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 일본이 소홀히 했던 동남아 지역 등에서 반일 시위가 강하게 일어나고, 이후 일본이 그들의 인식을 바꾸기 더 많은 시간과 재정적 노력을 기울였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한국의 성공적인 공공외교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별첨 1】한일 정부 주관/지원 주요 교류사업

■ 한일축제한마당

- 2005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우정의 해’를 계기로 시작된 한일 최대의 민간교류행사로, 양국의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함. 2009년 9월 최초로 ‘한일 축제한마당’ 행사를 양국이 상대국의 수도에서 동시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동일한 형식으로 한국과 도쿄에서 개최함.
- 한일 민간 인사들이 주축이 된 ‘축제한마당 실행위원회’가 주관, 일본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행사로, 양국 청소년, 지자체 문화예술단체 등이 참여함.
 -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https://omatsuri.kr/>
 - 한일축제한마당 in Tokyo. <https://www.nikkan-omatsuri.jp/kr/>

■ 한일 청소년 교류회

- 1987년부터 시작된 한일 청소년 교류 사업으로, 내각부에서 주최하는 6개의 국제교류사업 중 하나임. 내각부의 국제 교류 사업 중 양국 간 사업은 중국과 한국이 유일하며, 한일 대표단(청소년 25명, 통역 2명, 부단장 2명, 단장 1명)을 상호 15일씩 초청/파견하여 필드트립, 홈스테이, 문화교류 등을 실시함.
 - 주관: (한국) 여성가족부, (일본) 내각부
 - 실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 청소년국제교류추진센터(CENTERYE)
 - 일본: 日本·韓国青年親善交流事業. <https://www8.cao.go.jp/youth/kouryu/data/korea.html>
 - 한국: 국가 간 청소년 교류. <https://www.youth.go.kr/iyeye/pgif/odi/view2.do>

■ 한일 학술문화 및 청소년교류

- 주관: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일본) 일한문화교류기금
- 대상/인원: 연 240명(한/일 대학생 80명, 한/일 교원 80명)
- 내용: 9박 10일간 학교방문교류, 학생 및 교사 간 대화, 문화유적지 탐방, 홈스테이, 특강 등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user/nd75863.do>

■ 한일 중고생 교류

- 주관: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일본) 일한문화교류기금
- 대상/인원: 연 400명(방일 200명, 방한 200명)
- 내용: 6박 7일간 학교방문교류, 학생 간 대화, 산업시설 및 문화유적지 탐방 등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user/nd75863.do>

■ 한일 상대국어 선택 고교생 교류

- 주관: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일본) 문부과학성
- 대상/인원: 제2외국어로 상대국어를 선택한 고등학생 연 120명(한일 각 60명)
- 내용: 4박 5일간 학교방문교류, 문화유적지 탐방, 일본생활상 체험 등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user/nd75863.do>

■ 한일 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사업

- 주관: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일본) 문부과학성
- 대상/인원: 일본 공과대학 진학 희망 고교 졸업(예정)자 연 100명
- 내용: 한일 양국이 각 50%씩 부담, 5년간 장학금 지급(1년 예비교육과정, 4년 유학 기간)

■ 한일 대학생 교류사업

- 1972년부터 한일 양국 외교부 주최로 시행되었으며, 양국 대학생의 소통 강화와 우호 증진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함.
- 주관: (한국) 외교부, Korea Foundation, (일본) JENESYS, 일한문화교류기금
- 내용: 8박 9일간 양국 대학생 대표단이 상호방문하여, 외교부/외무성 방문, 상호 교류, 지방도시 등을 방문함. 사업 종료 후, 기관 수료증을 발급하며, 한일축제한마당과 연계하여 부스를 운영함.
- 국제교류재단. “한일대학생교류사업” <https://www.kf.or.kr/kf/na/ntt/selectNttInfo.do?mi=1131&bbsId=1051&nttSn=119175>

■ 한일포럼 및 한일주니어포럼

- 1993년 경주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발족해 1993년 12월 서울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 이후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함.

- 주관: (한국) 한국국제교류재단, (일본) 일본국제교류센터
- 대상/인원: 한일 양국의 오피니언 리더 및 전문가(정치, 정부, 경제, 학계, 언론 등) 총 50여 명(한일 각 25명)
- 국제교류재단. “제31차 한일포럼” <https://www.kf.or.kr/kf/na/ntt/selectDgtlDetailView.do?dgtlType=N&mi=1612&dgtlSn=16021&langTy=KOR>

□ 한일주니어포럼

- 2013년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으로 2015년부터 시작하여 <한일포럼>의 부대행사로 개최되고 있으며, 한일 양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각국에서 10명씩 모여 논의한 후 (2023년 주제: “우리가 그리는 미래”), 한일의 참여자 중에서 대표자를 1명씩 선출해 그 결과를 <한일포럼>에서 발표함.

■ 한일문화교류회의

-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국민 방문 시 양국 정상 간 합의·발표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을 살리고, 그 이후 조성된 양국 간 우호 협력분위기를 보다 실질적·구체적으로 고양시킨다는 차원에서, 지난 1999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 시 민간 레벨의 한일문화교류회의(이하 약칭 교류회의)를 구성키로 원칙 합의함.
- 한일 양국 관계를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인사와 문화·예술계 인사를 중심으로 교류회의 양측위원이 각기 구성됨으로써 한일 문화교류회의가 정식 발족함.
- 한일문화교류회의, <http://kjcec.or.kr/intro/>

【별첨 2】 한국 내 일본 관련 주요 기관 및 단체들

구분	주요기관 및 단체
재외공관	주한일본대사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문화교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일한문화교류기금
경제교류	일본무역진흥회 서울사무소(JETRO), 일본상공회의소 서울사무소
관광/지방교류	일본국제관광진흥회 서울사무소(JNTO),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CLAIR), 홋카이도&동북3현(아키타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니가타현, 시즈오카현, 나가사키현, 오키나와현, 대마토(쓰시마) 서울사무소
인적교류 학생교류지원	일본학생지원기구 한국사무소(JASSO)
일본인 커뮤니티	서울재팬클럽(SJC), 부산일본인회, 서울일본인학교, 부산일본인학교

출처: 필자 작성

■ 재외공관

- 주한일본대사관 https://www.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https://www.busan.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https://www.jeju.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 문화교류

-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https://www.kr.emb-japan.go.jp/cult/cul_guide.html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https://www.jpfr.or.kr/index/>
- 일한문화교류기금 <https://www.jkcf.or.jp/ko/>

■ 경제교류

- 일본무역진흥회 서울사무소(JETRO) <https://www.jetro.go.jp/korea/>
- 일본상공회의소 서울사무소 <http://www.jcciseoul.or.kr/>

■ 관광 및 지방교류

- 일본국제관광진흥회 서울사무소(JNTO) <https://www.japan.travel/ko/kr/>

-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CLAIR) <https://korea.clair.or.kr/>
- 홋카이도&동북3현(아키타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서울사무소 <http://www.beautifuljapan.or.kr/>
- 미야기현 서울사무소 <https://japan-miyagi.jp/seoul/kr>
- 니가타현 서울사무소 <https://www.niigata.or.kr/>
-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 <http://shizuokaseoul.com/>
- 나가사키현 서울사무소 <https://seoul-nagasaki.com/>
- 오키나와현 서울사무소 <https://blog.naver.com/okinawa-seouloffice>
- 대마도(쓰시마) 부산사무소 <https://www.tsushima-busan.or.kr/>

■ 학생지원

- 일본학생지원기구 한국사무소(JASSO) <http://jasso.or.kr/>

■ 일본인 커뮤니티

- 서울재팬클럽(SJC) <http://sjchp.co.kr/kr/index.jsp>
- 부산일본인회 <https://busanja.com/>
- 서울일본인학교 <http://www.sjs.or.kr/>
- 부산일본인학교 <https://busanjs.com/>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화정. 2020. “똑똑, 공공외교” KF 공공아카데미. 「처음 만나는 공공외교」. pp.1-50.
- 야마사키 히로키. 2020. “해외공공외교기관 만나보기: 일본,” 김화정 외. 「처음 만나는 공공외교」. 한국국제교류재단. pp.231-267.
- 오가와 타다시. 2013. “일본 공공외교의 기원과 발전” 낸시 스노우. 「21세기 공공외교 핸드북」. pp.575-598.
- 윤석준. 2020. 「공공외교의 이해」. 한올아카데미.
- 황순택. 2020. 김병호 외. “일본의 공공외교” 「공공외교의 이해」. 명인문화사. pp.163-190.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Addison-Wesley.
- Bennett, C. I. 2007.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6th Edition. Person Education.
- Brewer, M. B., & Brown, R. J. 1998. “Inter-group relations,”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2 (4th ed.). New York: McGraw-Hill.

2. 논문 및 보고서

- 강철구·홍진이. 2009. “일본 국제원조정책의 배경과 특징에 대한 고찰,” 「행정논총」 47(3), pp.225-244.
- 김기정·최종건. 2012.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계 연구」. 외교통상부 연구용역과제 보고서.
- 김태환. 2019. “대미 정책공공외교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주요 국가 사례 비교를 통한 함의” 정책연구시리즈 2019-07.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안세영. 2010. “일본 공공외교의 특징에 관한 연구 - 일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성원·오경수. 2003.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활동 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 「PR연구」 7(2), pp.98-142.
- 이성환. 2009.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 그리고 한일관계,” 「제2기 한일역

- 사 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pp.131-160.
- 이동한 외. “2023 대일인식조사: 일본 이미지와 한일 양국 역량 비교,”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제241-2호) 여론속의 여론」 (2023.8.2) <https://hrcopinion.co.kr/archives/27263>
- 이연정 외. 2004. 「일본국제교류기금의 대외문화 전략」.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최은미. 2018. “국가정체성을 통해 본 한일 갈등의 인식 차이 연구,” 「아세아연구」61(4), pp.229-260.
- 최은미. 2021. 「한국과 일본,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과 한일 관계」. Asan Report. 아산정책연구원.
- 최은미. 2022. “한일교류 천만시대의 착시현상_접촉이론을 통해 본 한일교류의 현황과 과제” 「일본연구논총」 55호, pp.63-89.
- 한인택·최은미. 2021. 「미 지방 민간 대상 정책공공외교 관련 주요국 사례 연구」. (재)국제평화재단.
- KIEP. 2018. “일본·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18, No.3. pp.1-23.
- Amir, Y. 1969. “Contact hypothesis in ethnic relation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71(5): 319-342.
- Douglas McGray. 2002. “Japan’s Gross National Cool,” *Foreign Policy* No.130. pp.44-51.
- Kazuo Ogoura. 2012. “From Ikebana to Manga and Beyond: Japan’s Cultural and Public Diplomacy Is Evolving” *Global Asia*. Vol.7, No.3. pp.24-28.
- Nicholas J. Cull. “Public Diplomacy” before Gullion: The Evolution of a Phrase” (2006.4.18) USC Center on Public Diplomacy.
- Joseph S. Nye, Jr. 1990. “Soft Power”. *Foreign Policy*. No. 80, pp. 153-171.
- 海外交流審議會. 2008. 「我が国の発信力強化のための施策と体制-「日本」の理解者とファンを増やすために」(2008.2) p.18.

3. 기타

- 문화체육관광부. 「201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https://ebook.culturestat.mcst.go.kr/home/view.php?host=main&site=20190507_102903&listPageNow=0&list2PageNow=0&code=3621&code2=0&code3=0&optionlisttype=L&search

code=0&searchcode2=0&searchdate=0&searchkey=&searchval=&search
 andor=&dummy=&&orders=

연합뉴스. “지난해 한일 인적교류 1천만명 첫 돌파…국교 정상화 때의 1천배” (2019.2.1)
<https://www.yna.co.kr/view/AKR20190201150200073>

외교부. “공공외교란” https://www.mofa.go.kr/www/wpge/m_22709/contents.do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https://www.jpfor.kr/index/>

일본문화원. https://www.kr.emb-japan.go.jp/what/culturalcenter_reporter_8th.html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제16회 ‘아시아국제학생영화제’ 한국예선 응모 작품 모집”
https://www.kr.emb-japan.go.jp/event/aicff_2023.html

조선일보. “전세계 ‘여권 파워’ 1위 일본... 여권소지자는 전체 23%에 불과” (2019.12.1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8/2019121801093.html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https://www.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https://www.busan.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일본내 우리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jp-ko/wpge/m_20779/contents.do (검색일: 2023.12.5).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https://www.jeu.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중기이코노미. “소비재로 일본을 알린 ‘쿨재팬(Cool Japan) 전략” (2016.8.28)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16249>

차세대 일본연구자 국외조사 지원 프로그램. <https://jfs-niken.org/>

펠로우십. <https://www.jkcf.or.jp/projects/category/fellowship/>

한국관광공사. “국가별 방한관광객통계”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nat/getForTourDashForm.do>

Asian International Children’s Film Festival. <https://asianfilm.chu.jp/>

Cool Japan Movement Promotion Council. 2014, Cool Japan Proposal. https://www.cao.go.jp/cool_japan/english/pdf/published_document3.pdf

CPD. “‘PUBLIC DIPLOMACY’ BEFORE GULLION: THE EVOLUTION OF A PHRASE”
<https://uscpublicdiplomacy.org/blog/public-diplomacy-gullion-evolution-phrase>

Gallup. “Country Ratings” <https://news.gallup.com/poll/1624/perceptions-foreign->

countries.aspx

Japan Foundation New York Center. <https://ny.jpf.go.jp/>

Japan Foundation Los Angeles Center. <https://www.jflalc.org/>

JENESYS 2023 Cool Japan. https://www.kr.emb-japan.go.jp/what/cooljapan2023_02.html

JET Programme. <https://jetprogramme.org/ja/>

JNTO. “訪日外客数の推移” <https://statistics.jnto.go.jp/graph/#graph--breakdown--by--country>

NHK World Japan. <https://www3.nhk.or.jp/nhkworld/>

Pew Research Center. “Topline Questionnaire” https://www.pewresearch.org/global/wp-content/uploads/sites/2/2018/11/Pew-Research-Center-Despite-Rising-Economic-Confidence-Japanese-See-Best-Days-Behind-Them-and-Say-Children-Face-Bleak-Future-TOPLINE_2018-11-12.pdf

Web-Japan. <https://web-japan.org/>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

外務省. “海外における対日世論調査”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pr/yoron.html>

外務省. “ロンドン市長主催午餐会における竹下内閣総理大臣スピーチ”(1988.5.4)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88/s63-shiryuu2-5.htm>

外務省. “広報文化外交” <https://www.mofa.go.jp/mofaj/comment/faq/culture/gaiko.html>

外務省. “国会における内閣総理大臣および外務大臣の演説 - 第68回国会における福田外務大臣の外交演説”(1972.1.29)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72/s47-shiryuu-1-5.htm#k331>

外務省. 「外交青書」(平成16年版)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04/hakusho/h16/index.html>

外務省. 「外交青書2023」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23/pdf/index.html>

外務省. “在外公館設置状況” <https://www.mofa.go.jp/mofaj/files/000047796.pdf>

外務省. “海外広報”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pr/index.html>

外務省. “ジャパン・ハウス” https://www.mofa.go.jp/mofaj/p_pd/pds/page24_000421.html

- 外務省. “日本ブランド発信事業” https://www.mofa.go.jp/mofaj/p_pd/pds/page22_001100.html
- 外務省. “海外における対日世論調査”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pr/yoron.html>
- 外務省. “インバウンド観光促進”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pr/visitjapan/index.html>
- 外務省. “文化の交流”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koryu/index.html>
- 外務省. “日米文化教育交流会議(カルコン)”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koryu/page22_003224.html
- 外務省. “人の交流”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hito/index.html>
- 外務省. “国際機関を通じた協力”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kyoryoku/index.html>
- 外務省. “文化に関する無償資金協力”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musho/index.html>
- 外務省. “対日理解促進交流プログラム” https://www.mofa.go.jp/mofaj/p_pd/ep/page23_001476.html
- 外務省. “アジア大洋州地域との交流 JENESYS” https://www.mofa.go.jp/mofaj/a_o/rp/page24_001716.html
- 外務省. “北米地域との交流 カケハシプロジェクト” https://www.mofa.go.jp/mofaj/area/page25_000243.html
- 外務省. “欧州地域との交流 「MIRAI」” https://www.mofa.go.jp/mofaj/erp/ep/page24_000530.html
- 外務省. “中南米地域との交流 Juntos!! 中南米対日理解促進交流” https://www.mofa.go.jp/mofaj/la_c/m_ca_c/page22_002530.html
- 外務省. “日中21世紀交流事業の概要” https://www.mofa.go.jp/mofaj/gaiko/culture/hito/sei/jc21/jc21_gai.html
- 外務省. 「外交青書」(平成18年版) <https://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06/html/framefiles/honbun.html>
- 外務省. “行政事業レビュー”. https://www.mofa.go.jp/mofaj/annai/yosan_kessan/kanshi_kouritsuka/gyosei_review/index.html
- 外務省. “行政事業レビュー. 令和4年度実施事業及び令和5年度新規事業一覧. 0009. 日韓

- 関係経費”。 https://www.mofa.go.jp/mofaj/ms/fa/page23_004430.html#section1
- 外務省. “日韓歴史共同研究” <https://www.mofa.go.jp/mofaj/area/korea/rekishi/index.html>
- 国際文化交流推進会議 (編). 1989. 「国際文化交流行動計画」. 国際文化交流推進会議
- 国際交流基金日米交流センター. <https://www.jpfa.go.jp/cgp/notice.html>
- 国際交流基金アジアセンター. <https://asiawa.jpfa.go.jp/>
- 国際交流基金. “【お知らせ】国際交流基金 (JF) の組織改編について” https://www.jpfa.go.jp/j/about/notice/notice_reorganization.html
- 国際交流基金 “3つの交流事業” <https://www.jpfa.go.jp/j/project/index.html>
- 観光庁 観光戦略課 観光統計調査室. “訪日外国人消費動向調査【トピックス分析】1年以内に再来訪する訪日高頻度リピーター (観光・レジャー目的客) の動向” <https://www.mlit.go.jp/common/001301433.pdf>
- 内閣府. “クールジャパン戦略について” https://www.cao.go.jp/cool_japan/about/about.html
- 内閣府. “ここがポイント『日本21世紀ビジョン』 - 新しい躍動の時代” (2005.5) https://www.esri.cao.go.jp/jp/esri/prj/sbubble/data_history/7/housin19_1.pdf
- 森口泰孝. “コンテンツビジネスの飛躍的拡大に向けた 政府の取り組み” 文化庁主催コンテンツ流通促進シンポジウム (2004.6.28) https://www.bunka.go.jp/chosakuken/seminar/contents_sympo/keynote/pdf/KeynoteSpeech.pdf
- 衆議院. “小泉内閣総理大臣の施政方針演説”. (2004.1.19)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annai.nsf/html/statics/ugoki/h16ugoki/02honkai/59honkai.htm
- 衆議院. “質問答弁経過情報”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201251.htm
- 首相官邸. “コンテンツ・日本ブランド専門調査会”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contents_brand/index.html
- 知的財産戦略本部. “「クールジャパン戦略」 (2019.9.3) https://www.cao.go.jp/cool_japan/about/pdf/190903_cjstrategy.pdf
- クールジャパン関係府省連絡・連携会議. https://www.cao.go.jp/cool_japan/kaigi/renkeirenaku/renkeirenaku.html
- 朝日新聞. “巨額赤字のクールジャパン機構 首相「経営改善求めること必要」” (2023.10.31)

<https://www.asahi.com/articles/ASRB04J0BRB0UTFK00F.html>
クールジャパン戦略推進会議. “クールジャパン戦略官民協同イニシアチブ (2015.6) https://www.cao.go.jp/cool_japan/kaigi/senryakusuishin/pdf/20150617_initiative_honbun.pdf
クールジャパン官民連携プラットフォーム. https://www.cao.go.jp/cool_japan/platform/platform.html
知的財産戦略本部. 「知的財産推進計画 2019」(2019.6.21)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hizaikeikaku20190621.pdf>
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クールジャパン戦略”. https://www.cao.go.jp/cool_japan/index.html
国際交流基金. <https://www.jpf.go.jp/>
国際交流基金 “3つの交流事業” <https://www.jpf.go.jp/j/project/index.html>
ジャパン・ハウス. <https://www.japanhouse.jp/>
文化外交の推進に関する懇談. 「文化交流の平和国家」日本の創造を」(2005.7) <https://dl.ndl.go.jp/view/prepareDownload?itemId=info%3Andljp%2Fpid%2F3531298&contentNo=1>
海外交流審議会. 「日本の発信力強化のための 5つの提言」(2007.6.20) https://www.mofa.go.jp/mofaj/annai/shingikai/koryu/pdfs/h18_teigen.pdf
海外交流審議会. 「我が国の発信力強化のための施策と体制-「日本」の理解者とファンを増やすために」(2008.2) https://www.mofa.go.jp/mofaj/annai/shingikai/koryu/pdfs/toshin_ts.pdf
文化外交の推進に関する懇談.「文化交流の平和国家」日本の創造を」(2005.7) <https://dl.ndl.go.jp/view/prepareDownload?itemId=info%3Andljp%2Fpid%2F3531298&contentNo=1>
政府の行政改革. “行政事業レビュー”. <https://www.gyokaku.go.jp/review/review.html>
首相官邸. “行政事業レビューの実施等について” <https://www.kantei.go.jp/jp/singi/gyokakusuisin/dai2/siryoku01.pdf>
日韓文化交流基金. “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会” <https://www.jkcf.or.jp/projects/2010/17283/>
日韓文化交流基金. “日韓歴史家会議”. <https://www.jkcf.or.jp/projects/2018/17288/>
日韓文化交流基金. “青少年交流”. <https://www.jkcf.or.jp/projects/category/youth/>

ASAN
REPORT

일본의 대한국 공공외교와 한일관계: 한일인적교류 천만 시대의 딜레마

발행일 2024년 6월

지은이 최은미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49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Copyright © 2024 by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SBN 979-11-5570-288-8 95340 (PDF)



9 791155 702888 (PDF)
ISBN 979-11-5570-288-8